

오색찬란 빛나는

오른팔반 글 모음집

고준서 고희민 권민균 김서준 박기범
박준영 박진수 유선민 유지원 이상훈
이재이 정이건 정현수 조준석 조창윤
조현 최순용 김에서 남서우 박시은
성연지 신가영 윤예원 이라임 이설아
이수빈 이하은 장윤서 전지우 정다민
주예나 한수빈 그리고 김세진 선생님

오
색
찬
란
빛
나
는

"꿈은 우릴 향해 돌고 있어."



오색찬란 빛나는

오른팔반 글 모음집

오색찬란 빛나는 오른팔반 글모음집

발 행 | 2023년 12월 18일

저 자 | 오른팔반(2023 인천신정초등학교 5학년 8반)

편집자 | 김세진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www.bookk.co.kr

© 오른팔반 2023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오색찬란

빛나는

오른팔반 지음

CONTENT

머리말

I 빛나는 소설과 에세이

1. 사람이 와 은지의 일기 - 고준서, 박진수
2. 갑.분 사각관계 - 김예서, 성연지, 주예나
3. 공포의 설탕물 - 남서우
4. 미래에서 온 메시지 - 신가영, 조창윤, 조현
5. 미래 지구 멸망 - 조준석
6. 윤아, 민주의 일기 - 이라임, 장윤서, 이설아
7. 시간 기차 - 정현수
8. 정월화가 피는 고양이 상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한수빈
9. 좀비 - 이재이
10. 주한이의 일기 - 윤예원
11. 오른손의 저주 그리고 오른손의 축복 -이하은, 박시은
12. 환생 - 전지우, 이수빈
13. Investigation - 이상훈, 유지원
14. <Remember>를 설치하겠습니까? - 정다민
15. 운석충돌 1시간 전 - 김서준

II 빛나는 정보글

16. 경찰이 되는 방법 - 유선민
17. 모두를 위한 한국의 저출산 - 고희민
18. 지구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 - 권민균
19. 컴퓨터 단축키 모음 - 정이진, 박준영

편집부의 말

오른팔반의 마지막 대장정 책쓰기 프로젝트를 마치며...

“대한민국의 상상력을 죽지 않았다.” – 고희민 학생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데에는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색찬란 빛나는’ 역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오른팔반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과 창의적인 상상력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오색찬란한 이야기들을 담은 글 모음집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8반 학생들을 닮았는지, 모음집에 담긴 글 또한 독자적이고 다채롭게 느껴집니다. 이 책을 읽을 우리 오른팔반 학생들,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이 책을 펼쳤을 때, ‘2023년의 나’를 떠올리며 살며시 웃음 짓길 바랍니다. 5학년 때의 나는 무엇을 좋아하였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는지 등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책이 멋진 날개를 달고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에 당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오른팔반의 영원한 담임 김세진 선생님이

제 1 화

가 람 이 와 은 지 의 일 기

고 준 서 , 박 진 수

가람이의 일기

내 이름은 이가람, 초등학교 5학년이다. 난 흙수저이고 친화력이 없어서 친구도 없다. 하필 우리 반 인싸 이은지에게 찍혀 왕따를 당한다. 그 날은 5학년 개학, 평범한 날이었다. 나는 5학년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책을 읽고 있었다. 뒤에 은지라고 불리는 예쁜 여자애가 다른 친구와 떠들고 있었지만, 나는 무시하고 책을 읽고 있었다. 조금 뒤에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선생님 인상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또 떠들고 있었다. 나는 시끄러워서 그 여자애에게 조용히 해주라고 부탁하였다.

"아, 네네~ 진짜 깐깐하네... 조용히 하면 되잖아!"

기분이 상했지만, 집에서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무시했

다.

'그런 사람은 그냥 무시해'

며칠 후 우리는 시험을 보았다. 어김없이 뒤에서 은지가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야 내가 분식 쏠 거니깐 정답 알려줘."

그렇다. 은지는 커닝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견의함에 이 사실을 넣었다. 그 후 은지와 그 친구는 0점 처리가 됐다. 쉬는 시간에 은지가 말했다.

"야 고자질한 놈 누구냐?"

그때 어떤 애가 나를 가리키면서

"쟤가 그랬어."

모든 아이의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그 후 나는 왕따를 당했다.

"오늘은 개학을 기념하며 짹을 바꿀 거예요."

'정말?' 벼락같은 일이었다.

내 짹은 전학 가서 좋았는데... 먼저 1분단이 자리를 뽑았다. 이은지는 1번이 걸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8번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떡해...'

나는 8번을 뽑았다. 나는 그 순간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나는 3초 정지한 후 이은지 옆으로 갔다.

"아씨, 이번 학기 똥 뺏았네."

쟤는 도덕 수업을 안 들은 것이 분명하다. 끔찍했던 한 달 후 어

느 날 이은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야 내가 어제 너희 집 갔는데 냄새 지독하더라! 너는 주변에 쓰레기 친구들 많아서 좋겠다. 너희 집 쓰레기장이잖아."

이은지 폐거리는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항상 나를 괴롭힌다. 정말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짹이 바뀔 수 있게 매일 기도하고 있다. 우리 반 선생님은 세 달에 한 번 짹을 바꾼다. 아직 두 달이 남았다. 두 달을 더 버텨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싫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갔다. 엄마는 일터에 있어 항상 밤늦게 들어온다. 나는 날마다 왕따를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있었다. 분명 일터에 가 있을 시간이었는데도 말이다. 엄마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엄마가 알았나 보다. 나는 결국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엄마는 다음날 나와 학교에 함께 가서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였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처음 안 사실이라며 수업이 끝나고 나와 이은지를 남게 하셨다. 이은지는 그저 장난이라면서 선생님께 말대꾸했다. 또 다음날 선생님은 이은지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지만, 이은지의 대답은 똑같았다. 그러자 화가 난 선생님은 이은지 엄마께 전화해 학교로 호출하셨다. 이은지는 자신의 엄마를 보고 놀란 듯했고, 잠시 뒤 선생님과 이은지 엄마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몇 분 뒤 이은지 엄마와 선생님이 나오셨다. 이은지 엄마는 이은지에게 입 모양으로 "집에 가면 넌 죽었어."라고 말한 뒤 이은

지에게 당장 사과 하라고 했다. 이은지는 마지못해 사과하였고 다
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이은지가 아니다. 다음 날부터 이은지 패거
리는 선생님이 안 보실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놀렸다. 심지어 집에
가는 길에 등 뒤에다가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을 던지며 나를 괴롭
혔다. 또한 내 등교 시간을 구하고 내가 나오자마자 나를 때리고
치며 괴롭혔다. 그런데 내가 평소와 다르게 엄마와 함께 나오는 날
이었다. 어김없이 그날도 이은지 패거리는 앞에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학교
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결국 선생님은 나와 이은지를
다른 반으로 보내셨다. 이은지 엄마는 이은지 패거리에게 은지가
한 잘못을 말해보라고 한 뒤 이은지를 엄청나게 혼냈다. 이렇게 나
의 일기는 끝났다.

온지의 일기

오늘은 5학년 개학이다. 친한 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 수다를 떨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애가 조용히 하라고 난리를 쳤다. 나는 꼭 그 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며칠 후, 시험을 보는데 지우개가 없어서 지우개를 빌려주면 분식을 쓴다고 했는데 이가람이 들어서 내가 답을 알려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나와 친구는 둘 다 0점 처리되었다. 그래서 나는 복수심이 더욱 불탔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패거리 만들자고 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자신이 이가람에게 당한 일을 차례로 말하였다. 그래서 며칠만 왕따를 시켜주려고 했다.

그저 조금만 장난으로 하려고 했다. 개가 그렇게 힘들어 할 줄 몰랐다. 하지만 이가람도 잘못은 했다. 자기가 나를 의심해 놓고 거짓말을 하니까 조금 놀렸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필요는 없었다. 물론 나도 엄마께 많이 혼났고 나 또한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 아무리 반성해도 질문 한 가지만 머릿속에 남는다. ‘그런데 과연 나만 잘못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가람이 먼저 잘못을 하였고, 나는 그것에 대한 정당방위와 복수를 조금 했다고 느껴진다. 내가 잘못했는지 이가람이 잘못했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다. 이가람이 울며 불쌍한 표정을 지어서 선생님과 엄마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졌다. 그때는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다 보니 내가 잘못했다고 느

껴지지 않는다. 이가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나로서는 이가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가람은 혼나는 나를 보고 집에 가서 웃었을 것이다. 나는 이가람 때문에 다른 반으로 반을 옮겼고 그 반 아이들은 내가 학교폭력을 해서 강제로 반을 옮겼다고 생각해서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현명하고 공평한 선생님이라면 절대로 나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들이 없는 이 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학교폭력은 나에게 돌아온다.

제 2 화

갑.분 사각관계

김 예서, 성연지, 주예나

- 용두산: 학교의 인싸, 반숙이를 좋아함.
- 김반숙: 아이돌 지망생, 식이를 좋아함.
- 도식: 조용하지만 그래도 친구가 많음, 방취를 좋아함.
- 성방취: 반숙이와 단짝, 두산이를 좋아함.

챕터 1. 반숙이 시점

눈이 내렸다. 웬지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된 느낌이었다. 교실에 도착하니 선생님만 계셨다. 나는 가방을 놓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러 갔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다. 웬지 운이 좋은 것 같았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아이돌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았다.

교실에 오니 5명이나 와있었다. 우리 반은 8명이니 꽤 많이 온 것이다. 방지와 수다를 떨고 있다가 수업이 시작되었다. 방쥐와 놀 때도 재밌지만, 우리 선생님 수업도 무척 재밌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최고인 것 같다.

우리 반 남자애들은 모여서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근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남자애가 있다. 바로 '식'이다. 우리 반 식이는 모범생이면서도 얼굴이 잘생겨서 여자애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나는 방쥐와 식이에 대해 열을 높이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식이가 다가왔다. 식이는 나에게 무엇을 버려달라는 부탁을 했다. 나는 기운이 쑥 빠졌다.

챕터 2. 방쥐 시점

"반숙아 아깐 그게 아니라..."

"알아..하지만 앞으론 조심해줘"

"으응..."

나와 식이 사이는 가까워졌지만, 아직 식이는 반숙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사실 나는 두산이를 좋아하는데... 두산이라는 얘기에 몇몇은 놀랐을 것이다. 두산이라면 우리 반 대표 양아치니까 그럴 수밖에. 벌써 다음날이 되었다. 학교에 가기 싫어졌다. 어제의 일 때문이겠지... 평소에 활기차던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울하게 등교를 했다.

나는 이 삼각, 아니 사각 관계를 알아냈다. 반숙이는 식이를 좋아

하고, 식이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두산이를 좋아하고, 두산이는 반숙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 두산이도 이 관계를 알아차린 것 같다. 우리는 서로 눈빛 교환을 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였다.

일단 두산 이는 100% 아니… 1000% 알아차린 것 같다. 이 관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모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명이 포기할 순 없는 모두가 진짜로 진심인 상황이 다 이럴수록 진지하게 행동해야 할 까닭일까. 으… 일단 식이가 잘생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내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 내 느낌상 오늘에서야 네 명 다 이 관계를 알아차린 것 같다.

챕터 3. 식이 시점

"다들 관계는 눈치챘지?"

우리는 동시에 학교 반 한가운데에 모여 망설이다 반숙이가 말을 먼저 꺼냈다. 나는 반숙이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관계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다. 학교가 끝나고 휴대전화에 알람이 떴다. 바로 방귀가 나, 두산이, 반숙이가 포함된 채팅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갑자기 톡이 와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답장을 했다. 다음날 우리는 모두 함께 놀았다. 나는 단체 채팅방 덕에 그 관계를 알아냈다. 바로 사각 관계라는 것을.

나는 방귀를, 방귀는 두산 이를, 두산 이는 반숙 이를, 반숙 이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는 채팅방 덕분에 분식집을 같이 걸어

가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그때, 식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일요일에 파자마 파티할래?"

'나이스! 드디어 나의 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군... 훗....'

우리는 일요일 반숙이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자마 파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기분이 매우 좋아서 집에서 3번이나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짐을 부랴부랴 싸고 반숙이네 집에 도착했다.

챕터 4. 두산이 시점

우리는 일요일에 반숙이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였고, 다음 날 등교를 같이 했다. 그런데, 방쥐가 길모퉁이에 머리를 부딪쳤다. 나는 방쥐의 모습이 너무 웃겼다. 방쥐는 머리에 밴드를 붙이고 다녔다. 우리들의 대화는 사랑에 미친 사람들의 대화 같았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그때, 방쥐가 입을 열었다.

"혹시 이번 파자마 파티 덕분에 마음 바뀐 사람?"

방쥐와 반숙이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애한테 얘기를 꺼내기로 했다.

"나 너 좋아해!"

"와~"

우리는 환호를 질렀다.

나는 너무 신나서 어쩔 줄 몰랐다. 왜냐하면, 반숙이가 드디어 나

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나와 반숙이, 그리고 식이와 방취는 연인이 됐다. 나는 너무 기분이 상쾌했다. 엉켜있던 실이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반숙 이를 쳐다보았다. 눈 맞춤에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나는 진짜로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떡볶이를 먹고 분식집에서 나왔다.

"역시 우리는 운명인가 봐!"

끌

제 3 화

공포의 설탕물

남서우

그저 평범한 목요일 밤 10시였다. 나는 친구에게 사탕을 선물해 주기 위해 설탕을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냉장고 옆 식탁에 올려놓으러 가고 있었다. 하지만 녹은 설탕이 담긴 접시가 너무 뜨거웠던 나는 접시를 작은 수건으로 같이 들었다. 그러다가 그만, 나는 엄마와 아빠가 놀랄 만한 일을 저질렀다.

그 일은 바로… 설탕물을 다리에 흘려 화상을 입은 것이다. 손에도 설탕물이 튀어서 여기저기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밤 10시라 이미 늦은 시간에 병원에 방문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찬물을 담근 욕조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건으로 몸을 닦은 뒤 간단하게 소독하고 연고를 바른 뒤 밴드까지 붙여서 간단하게 치료하고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 아침이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재빠르게 병원으로 갔다. 내가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의 친구가 의사여서 물어본 결과,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엄마 친구에게 추천받은 병원은 바로, 화상 전문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1시간 동안이나 대기하였고 드디어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진료 결과, 선생님께서는 매일 병원에 나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이돌이 꿈이기에 매일 춤을 춰야 한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땀이 나는 운동인 춤을 절대 추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LED 불빛을 다리에 비추면서 울었다. 그런 내 옆에서 엄마는 나를 위로해 주었다.

“이런 경험을 해봐야 강해지는 거야.”

몇 주가 지나고… 원래 수술일은 9월 17일이지만,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 때문에 입원 일은 내 생일 당일로 선정되었다. 그렇게 내 생일 파티 당일이 되었다. 나와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만나 생일 파티를 하려 나의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재미있던 생일 파티를 끝내고 그 다음 날 나는 병원에 입원하러 갔다. 그때부터 최악의 생일이 예상되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 나는 입원 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링거 바늘을 꽂는데 간호사 선생님도 링거 주사가 이번에는 엄청나게 아픈 거라고 해서 조금 떨렸지만 내가 아픈 거를 잘 참아서인지 별로 아프지는 않았다. 병원 첫 음식으로는 띡볶이가 나와서 너

무 맛있게 먹었지만, 내 생일에 입원이 아직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다음 날, 드디어 수술하는 날이 되어서 머리를 질끈 묶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마취 선생님께서 전신 마취를 할 거라 하셔서 긴장했는데, 그냥 자고 일어난 듯했다. 일어나 보니 나는 산소통을 끼고 있었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무통증 주사를 끼워 주셔서 덜 아파지긴 하였다.

나는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갔다. 오랜만에 등교한 학교는 너무나도 달랐다. 분위기, 공부 진도, 친구들의 대화하는 양 등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나는 최대한 열심히 학교 진도를 따라잡았고 드디어 진도를 따라잡는 데에 성공하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언제 내 다리가 나을지 모르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돌을 한다고 해도 팬찮을지, 상처가 보이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아이돌의 꿈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나랑 약속할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나는 실밥을 뽑았다. 뽑을 땐 아팠지만, 참을성이 좋은 편이라 생각보다 팬찮았다. 실밥을 뽑은 날은 다리 한쪽을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부탁하며 일상생활을 잘 해냈다. 물론, 여전히 춤을 추지 못한다. 춤은 내 목숨과도 같은데 하루 동안 춤을 추지 못한다.

그리고 며칠 후 체육대회를 했다. 땀이 나는 운동을 하면 안 됐지만, 나는 딱 체육대회 전날부터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께 미리 부탁해 놓아서였을까? 타이밍이 좋아서인지 체육대회 날 컨디션과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리고 랜덤 플레이 댄스 타임이

왔다.

나는 너무 신이 났다. 오랜만에 춤을 추지만 그것도 학교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것이 나에게는 꿈만 같았다. 이번에는 좀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나는 의외로 순조롭게 모든 노래에 나가며 친구들과 선생님의 감탄을 들었다.

그리고 급식을 다 먹고 친구와 놀러 가기 위해 친구를 기다리던 중에 다른 반 친구들도 나에게 칭찬해 주었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마치 내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았다. 모두에게 인정받으면서 춤을 춘 것이 나에게는 너무 좋았다. 오늘 일은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다리 때문에 운동을 못 했지만, 딱 오늘부터, 그것도 운동회에 랜덤 플레이 댄스를 쳤다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 병원에 갔다. 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에 로션과 연고를 발라가며 지냈더니 병원에서 많이 나았다고 이제 흉 치료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내 기분은 체육대회 날과 다를 게 없었다.

굳이 다를 게 있다면… 그때는 그 시간만 기뻤다면, 오늘은 하루 동안이나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나의 다리 케어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키가 155가 넘으면 아이돌 오디션 보게 해줄게!”

그래서인지 나는 이날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전보다 일찍 자고, 밥을 열심히 먹었다.

열심히 먹고, 운동도 하고, 최대한 일찍 자니까 상처도 빨리 낫고, 키도 점점 크는 것 같아서 행복했다. 다리가 빨리 나아서 아이돌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달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갔더니, 드디어 수영장도 갈 수 있고, 다리에 물이 오랫동안 닿아도 괜찮다고 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엄마께서는 수영장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고 하셔서 너무 행복했다. 나는 이대로 계속 수영장도 가고 더 재미있게 놀 것이다. 여러분은 절대로 다치지 마세요!

제 4 화

미래에서 온 메시지

신가영, 조현, 조창윤

- TM: To Mirae의 약자. FL의 경쟁사이자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
- FL: Future Life의 약자. 인조인간을 개발.
- 김유한: 17살 인조인간 남고생, 최초로 인조인간임을 자각.
- 한소윤: 17살 인조인간 여고생, 유한이의 소꿉친구.
- 박민아: 18살 인간 여고생, TM 회장의 딸.

To. 이걸 읽고 있을 나의, 대한민국의 과거

Intro

나의 이야기를 보고 있을 그대에게 남기는 메시지

나의 이야기를 보고 있을 그곳은 21세기 초중반, 꽤 저출산 시대일 것이다. 지금은 더하지, 그렇기에 아예 사람들이 안 태어나, 대한민국은 더욱 약해지고 약해져만 갔다. 그리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람 대신 인조인간을 입양시켜서 우리나라를 보존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인조인간이란 것을 안 인조인간은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모습이 보이기에, 그 안건은 Future Life 기업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가 함께하여 비밀리에 실행되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인조인간들이 알면 모든 인조인간이 무기력해질 테니, 자폭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제1장

김유한, 최초의 자각

"2062년 11월 17일, 오전 9시 뉴스입니다. 오늘부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가정당 0.13%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Future Life 기업이 12월 말쯤, 인조인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로부터 약 반년 뒤인 2063년 6월 19일, 인조인간 H-269B8-2064-0619호,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선 나는 이유나 김

유현 부부에게 입양되어 김유한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리고 인조 인간이 폭파한 것을 처음 본 그날은 나의 10번째 생일이었다.

"유한아~ 너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해!"

소윤이와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다.

"유한아, 아빠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 짜잔!"

"와! 퓨처랜드 자유 입장권이다~"

"나도 같이 간다고~!"

소윤이가 말했다.

한 시간 반 뒤, 우리는 퓨처랜드에 도착했다.

"엄마, 퓨처 익스프레스랑 미래로드롭이랑 웨이브 리버랑 어... 그 러니까 다 타고 싶어요!"

"그래 오늘은 유한이 하고 싶은 거 다 타."

"와!!"

나는 엄마와 함께 웨이브 리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말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인조인간이었어요?"

어떤 남자아이가 힘겹게 말하고 있었다.

"아... 아니 그러니까 너는..."

그 옆에 있던 어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떨면서 말씀하셨다.

"으아아아아..."

펑!!!

폭발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나와 소윤이는 깜짝 놀랐다.

"엄마, 이 소리 뭐야?"

소윤이와 유한이가 물었다.

"어... 그러니까 기계가 터진 것 같아."

"나중에 저도 저렇게 되는건 아니죠...?"

"어 아니야... 유한이하고 소윤이는 그럴 일 없을 거야."

7년 뒤

"하 너무 힘들다. 근데 내 생활이 너무 규칙적인데. 이 정도면 로봇 아닌가? 무슨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인조인간 같은 거 아닐까?"
쩌적. 얼굴이 갈라졌다.

"어...? 이게 뭐야?"

하지만, 나는 내가 인조인간임을 깨달았음에도 자폭하지 않았다.
17살인 지금도, 그리고 그 후에도.

내가 자폭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내가 어릴 때 소윤이와 놀다가 언덕에서 굴러서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 코드를 읽는 장치가 고장 난 것이라고 추측이 됐다. 그리고 소윤이도 같이 굴렸으니.

`내가 인조인간이라면... 나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소윤이도 인조인간인 건가...?`

나는 재빠르게 바로 옆 아파트까지 달렸다.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소꿉친구 소윤이는 그와 함께 거의 모든 유년 시절을 함께했다.
그렇다면 그 애도 인조인간일 확률은 높다.

"후우... 야, 한소윤"

소윤이가 풀어헤친 부스스한 머리로 집 밖에 나왔다.

"아 왜. 뭔데 또 아침부터 그 꼴 났냐고..."

‘아… 그렇지만 소윤이 얼굴에도 나처럼 금이 가면 어떻게 하지?’

"아 그래서 왜 왔냐고!"

소윤이가 화를 내면서 죽일 듯이 노려봤다.

나는 부서지지 않았어도 소윤이는 부서질 수도 있다. 나는 뭔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거일 수 있으니…

‘그래도… 그때 소윤이도 분명 같이 넘어져서 굴렀는걸… 그래, 나를 믿고 한 번 해보자! 소윤이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소윤아. 사실 우리 인조인간… 이 아닐까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찌저적… 쭉.

"아? 그러고 보니… 나 기계인가…? 그때도 그렇고..."

소윤이도 알아차린 듯했다. 하지만 소윤이는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친구를 잊지 않은 것에 감사했지만, 소윤이한테 약간의 죄책감이 느껴졌다.

"아 뭐야! 내 손 왜 아래? 야 이거 봐봐 뭐야… 너 무슨 짓 한 거야?"

소윤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 그게…"

소윤이는 안 믿어줄 게 뻔했지만, 말은 해줘야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될 것 같기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설명을 해주었다.

"음~ 그렇단 말이지? 그래, 믿어주지 뭐. 네가 어차피 거짓말하면

나한텐 다 들키니까. 근데 어차피 이건 거짓말 아닌 것 같으니…
이번만은 봐주도록 하지."

그리고선 나는 소윤이와 우리 같은 인조인간에 대한 추측을 좀 더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갔다.

‘하… 어렸을 때 폭발한 그 사람도 자신이 인조인간이란 걸 알아서 터진 거네…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날 속인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갑자기 엄마가 날 17년 동안 나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에게 화를 냈다.
“엄마! 그동안 날 속인 거야? 어?”

“유한아, 진정해, 엄마가 천천히 얘기해줄게… 응?”
쾅!

나의 방문은 한동안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소윤이한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 유한아, 잘 지내?”

“하… 아니.”

“왜 그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뭐든 일단 말해봐.”

“실은….”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다.

“아. 그랬구나… 그렇지만, 너는 이모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이모께 감사해야 해.”

“왜?”

유한이가 물었다.

"널 속인 것도 속인 거지만… 네가 안 부서지는 걸 모르신 채로 마음 졸여가시며, 또 널 속이면서 네가 폭발하지 않게 해주신 거잖아. 널 속이는 게 꽤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그렇지 않아?"

"…"

"지금이라도 이모께 사과드려!"

"알았어… 고마워. 소윤아…"

그리고선 나는 당장 엄마께 달려가 말했다.

"엄마, 미안했고, 고마워요…."

제2장

인조인간의 진실

나는 내가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 무언가를 알기 위해 소윤이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우리가 이제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뭘 해야 할까?"

"음... 우리가 인조인간이니까 인조인간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가?"

"우리 인조인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그래"

그 뒤로 우리는 일요일마다 카페에서 만나 인조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에서 한 옛날 기사를 봤다.

'인조인간도 인권이 보장 필요해...'

"유한아, 이게 뭘까?"

"모르겠는데 한 번 눌러보자."

그 뉴스 기사는 인조인간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니, 인조인간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소윤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소윤아, 혹시 인조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비밀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 그럴 수도?"

소윤이와 나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집으로 가 엄마께 여쭈어보았다.

"엄마, 혹시 왜 인조인간이 탄생한지 알고 계세요?"

"너도 이제 네가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구나. 사실 인조인간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막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FL 기업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란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너와 소윤이 같은 인조인간들도 사람같이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엄마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머릿속이 점점 더 꼬여만 갔다.

'하... 인조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뿐이라니. 게다가 차별까지 당하고 있어. 뭐지? 이 기분은?'

나는 내가 아직 큰 일을 하기에는 배경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소윤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다.

"유한아, 근데 여기에서 TM 기업이 FL 기업과 대립 관계라는데.. TM이 뭐하는 거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퓨처백과에 찾아봐."

TM은 운송, 수입, 수출, 제과, 건설을 하는 한국의 대기업이다. 정

식명칭은 To Mirae이며, FL에 벼금가는 기업이다.

"TM은 되게 다양한 걸 하네."

"근데 소윤아, 좋아하기만 할 건 아닌 것 같아."

TM은 FL과 경쟁 상대이듯, TM에 직원들은 인조인간 차별주의자이다.

"있잖아, 우리 TM 회장은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소윤이가 말했다.

"머리도 식힐 겸 공원에 갔다 오자."

"그래."

그때였다. 누군가 소윤이의 어깨를 쳤다.

"아! 아프잖아요!"

소윤이가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화를 냈다.

"죄...죄송합니다."

"앗,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죠?"

"어! 머리카락이랑 목걸이가 걸렸는데... 팬찮으세요?"

‘소윤이의 머리카락이 걸리다니.’

그 상태로는 짜증을 낼 게 분명했다.

"아. 유한아, 어떻게 하지?"

"악, 머리 아파."

"하... 내가 빼줄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카락 자르셔야 할 것 같으신데. 미용실 같이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소윤이에요."

(미용실에서)

"같이 산책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화번호… 교환 하실래요?"

"네! 좋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앗, 저는… 18살이에요!"

"나보다 한 살 언니네! 친하게 지내자!"

"응!"

미용실에 다녀온 소윤이가 말했다.

"야 야 김유한, 나 머리 팬찮은 듯함. 어때?"

"어, 팬찮음."

"그렇지? 알고 보니 민아 언니가 투 미래 그룹의 회장, 박회장의 딸이라 엄청 좋은 미용실로 예약해줬어!"

익숙한 그룹 이름에 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투 미래 기업이 바로 TM이기 때문이다.

‘해맑게 웃는 소윤이, 만약 민아가 우리를 끌어내려 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하… 잠깐만 따라와 한소윤."

"앗, 잠깐만 얘들아! 어디 가니?"

뒤에서 민아가 따라오고 소윤이는 그런 그녀를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소윤이를 끌고 공원 뒤편,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갔다.

"야, 한소운.. 너... 네가 TM 기업을 피하자고 했잖아..."

"응! 근데 왜?"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는 소윤이를 보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을 정도였다.

"하. 왜 웃냐 김유한? 설마 나 민아 언니랑 친해졌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투 미래가 TM이잖아 한소윤..."

"아... 그렇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 누가 봐도 TM을 조심해야 하지만 민아 언니는 안 그럴 것 같단 말이야..."

‘이번만은 소윤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소윤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했으니.’

"그래, 이번만은 너를 믿어줄게, 한소운."

나는 이번만은 소윤이를 믿어주기로 하고 소윤이 그리고 민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산책하며 친해진 민아는 우리가 인조인간인 것을 알게 된 후 미안해하며 말을 해주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인조인간 차별주의자를 싫어해. 나도 인조인간을 차별하지는 않고 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그랬군요. 네, 잘 알았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FL이나 TM에 가서 인조인간에 대해 따지려 했는데, 같이 가시지 않을래요?"

"그래, 인조인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가 인조인간임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FL은 모르겠지만, TM 문서 보관실 출입 정도는 내가 도울 수 있어."

제3장

인조인간의 권리와 정체성

"유한아, 그러면 우리 FL에 먼저 가? 아니면 TM에 먼저 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FL은 인조인간에 대해 더 알 수 있고, TM은 TM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인조인간과 여러 로봇들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야."

"저기, 얘들아. FL에 먼저 가는 게 어떨까?"

"앗, 언니! FL 먼저요? 왜요?"

"그게... 지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다 보니 TM은 아버지께서 외근을 하러 가시는 주말에 가는 건 어떨까?"

"아, 그렇네요.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으니, 그게 좋겠네요. 소윤아, 너는 어때?"

"나는 어딜 가든 괜찮은 듯"

"그러면 내가 견학서를 써서 내놓을게.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 다들 시간 있지?"

"네! 유한아, 너도 학원 없잖아!"

"응, 그렇지."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보자 얘들아!"

"안녕히 가세요 언니!"

그로부터 다음 주 금요일, 우리는 FL로 갔다. 민아 씨가 TM 회장 딸이라 들여보내 주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 손을 썼는지 쉽게 보내줬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견학서를 쉽게 냈어요? FL이 아무리 TM보다 견학이 쉽다지만, 그래도 견학은 어렵던데?"

"아, 내가 FL 회장님과 꽤 친하다 보니까."

견학을 하다 보니 여러 휴머노이드가 나왔다. 인조인간은 역시 없었다.

"역시 기밀이라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가다보니 회장실 앞까지 도착했다.

"후. 얘들아, 이제 우리는 회장님을 만날 거야. 일단 들어가면 비서님이 계실 텐데, 비서님 안내대로 가면 돼."

"언니는요...?"

"앗, 나는 아버지께서 계속 부르셔서 가봐야 해. 미안해. 그러면, 잘 갔다 와."

"알았어요, 언니! 언니도 잘 다녀오세요!"

"소윤아, 우리 잘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잘만 한다면 할 수 있어! 힘내자!"

"응."

우리가 들어갔을 때, 민아 씨 말대로 비서님이 계셨고, 그 후로 큰 문이 있었다.

"김유한 님, 한소윤 님.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앗 감사합니다."

끼익- 문이 열렸다. 그 문 안에는 넓은 방이 있었고, 눈앞에는 큰 책장들과 큰 책상, 그리고 회장님이 앉아계신 의자가 있었다.

"너희가 민아가 말해준 인조인간 최초로 자신이 인조인간임을 자

각한 아이들이니?"

"네, 혹시. 저희가 인조인간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초로 자각한 인조인간이다 보니, 인조인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요. 인조인간을 만드는 재료라던가, 아니면 인조인간이 에러가 나는 경우라던가. 어쨌든 인조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회장님의 말씀하셨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들이구나."

우리는 회장님의 인조인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내가 인조인간의 창시자지만 인조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라는 점은 참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단다. 부끄럽게도 인조인간의 창시자로서 인조인간의 인식과 쓸모를 바꾸는 마땅한 조치를 아직 하지 못했단다. 인조인간의 인식이 안 좋은 점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견학을 허락한 것이란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조인간으로써의 권리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지 않겠니?"

한창 회장님과의 토론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문을 벌컥 열며 누군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어, 그래 무슨 일인가 정 부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정보부 부장이었다.

"현재 TM 본사에서 인조인간을 제거할 목적으로 로봇을 대량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흠... 이거 상황이 복잡해 졌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TM 회장은 왜 인조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었다.

"알고 있겠지만 TM 회장은 인조인간 차별주의자란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너희 말이 맞단다. 도대체 왜 그렇게 난폭하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쯧쯧. 난 사실 예전부터 이 일이 터질 거라고 짐작했단다.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니 머리가 참으로 복잡하구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게 방안이 있다."

회장님의 방안은 우리 둘 중 한 명의 CPU에다 슈퍼 해킹 칩을 심는 것이다. 이 칩을 심으면 힘이 인간의 7.86배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아직 10배까지 힘이 세지는 기술은 아직 FL의 기술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또한 인조인간은 원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폭력을 억제하도록 코딩을 해놓았는데, 이 칩을 심으면 폭력 억제 코드가 해제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회장님의 말씀은 우리 둘 중 한 명에게 이 칩을 심어서 힘을 무지하게 세계 만든 다음 인조인간을 죽이는 로봇만 해치도록 코딩한 뒤 인조인간 퀄링 로봇을 없앨 작전이란 것이다.

"회장님, 제 생각에도 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힘만 세져서는 싸우기 힘들지 않을까요? 싸움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부족할 텐데..."

"회장님, 소윤이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싸움 기술은 어떻게 커버 하나요? 아무리 힘만 세웠자 그들도 힘이 셀 텐데요."

"후후, 그럴 줄 알았단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의 기술들도 함께
칩에 넣어놓았단다."

"와~ 진짜요? 그럼 좋죠! 앗, 근데 칩은 저랑 유한이 중, 누구에게
삽입하나요?"

"음... 그건 신체검사, CPU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겠
구나."

"회장님, 그러면 검사는 언제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그건 오늘... 아, 안되겠구나. 그러면 너희들 내일 오후 4시쯤
에 와주지 않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렴.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겠다."

"네,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날, 회장님은 누구에게 칩을 넣을지 선택하기 위해
체력 검사를 시행하셨다.

— 삐

"흠... 칩은 유한이에게 넣는 게 좋겠구나. 신체적 조건은 유한이가
더 뛰어나단다. 그래도 기억력이나 인식하는 부분은 소윤이가 더
뛰어나지만, 칩을 제거했을 때 회복 속도도 유한이가 더 빠르구나.
그러면 유한아, 팬찮겠니?"

"네. 팬찮습니다."

"그러면, 슈퍼 해킹 칩을 너에게 맞도록 조금 더 손본 다음, 너에
게 보내주마. 그리고 칩을 장착하는 법을 알려주자면... 이렇게 하
면 된단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슈퍼 해킹 칩은 사회에 드러나거나 뉴스 보도에 나가면 안 되기
에, 회장님께선 FL 드론으로 은밀하게 주신다고 하셨다. 그로부터
터 3일 뒤.

"어...? 회장님이 오늘 정오까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죠?"

"하... 칩이 너희 집으로 이동하다 드론이 추락했구나. 이건 예상하
지 못했는데..."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기에 나는 너무 놀랐다.

"이 칩이 사회에 노출되면 큰일인데..."

"이거 미안하게 되었네... 근데 더 안 좋은 소식도 있어."

나는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 드론이 하필이면 TM 본사에 떨어졌단다. 그 녀석들이 우리의
칩을 카피해서 자기 킬러 로봇에게 쓰는 건 시간문제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 두 귀를 의심했다.

'하... 이걸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지. 일단 자자.'

다음 날, 나는 잠을 통 못 자서 너무 피곤했다. 일어나서는 소윤
이에게 이 소식을 바로 알렸다.

"그게 사실이야?"

소윤이는 항상 밝고 발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우울한 모습은 처
음 봤다.

‘소윤이가 이렇게 우울하면 진짜 심각한 건데...’
그로부터 며칠 뒤, 또 나를 무섭게 할 회장님의 전화가 왔다.
회장님,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큼큼... 우리 FL이 기존의 칩보다 더 강한 칩을 개발했단다. 이름은 하이퍼 해킹 칩이란다. 인간보다 9.89배 정도 더 강하지. 저 악랄한 TM들은 창의력이 없어, 이런 칩을 만들지 않을 거란다. 단지 ‘와!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하겠지. 어쨌든 이젠 너무 슬퍼 할 필요 없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 안전하게 보내주마.”

그 다음 날, 나는 하이퍼 해킹 칩을 심고 우리 집 뒷마당에서 내 능력을 연습했다. 매일 매일, 온종일 연습하여 힘을 키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춘 후부터는 체육관에서 매일 로봇이랑 복싱을 연습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

관장님의 함성과 함께 오늘의 연습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유한이가 로봇을 이겼네!”

지켜보던 민아 씨와 소윤이가 말했다. 힘뿐만 아니라 기술도 익힌 나는 매일 꾸준히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이젠 웬만한 로봇들도 1분 정도면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유한아, 이제 TM과 맞서 싸워도 될 것 같구나. 어떠냐?”

“그래. 유한아! 이번이 우리가 TM에 맞서 싸울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소윤이도 회장님의 말씀에 동조하며 말했다.

“후... 그러면 이제, 갈까?”

"아니, 문서 보관실에 먼저 가자. 내가 도와줄게."

"네, 좋네요~"

끼익~

"저기, 누구 계세요?"

"한소윤, 있을 리가 없잖아..."

"아, 그런가?"

"..."

몇 초간의 정적 끝에 기계음이 들렸다.

"애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끼긱 끼기긱~

쾅.

갑자기 바닥에 구멍이 생기며 TM 회장이 나왔다.

"아, 아... 아버지?"

"그래, 나다, 민아야."

"왜 이름을 부르고 그러세요... 민아 언니랑 사이가 소원했다면서요? 그럼, 민아 언니 기분 나쁘겠다... 왜 그러세요? 기분 나쁘게"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아,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시끄럽다.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구나. 그러면, 그냥 집에서 나가주려무나. 씩 꺼져버리거라."

퍽~ 땅이... 아니, 바닥이 부서지며 우리는 깊고 깊은 지하로 빠져들어 갔다.

"따님과 그 외의 친구들, 잘 가주렴."

제4장 모든 지적 생명체의 평등을 위하여

'으윽, 여긴 어디야...'

"얘들아, 땐찮니? 어떡하지. 여긴 나도 와보지 못 한곳인데. 여긴, TM 본사의 지하 같아."

"근데, 내가 알기엔 TM은 환경 개발을 덜 하려고 지하 주차장 및 지하 실험실을 만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으음. 그건 이 지하를 만들기 위해 한 거짓말인 것 같아."

깨어난 소윤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줬다.

"으음! 뭐, 별거 아니네!"

‘역시 한소윤, 긍정적이야.’

웃음도 잠시 후 고요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조용함이 이곳을 더 섬뜩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윤이가 잠시라도 정적을 깨기 위해 말했다.

"그래도 피난 방화 구조 규칙상 무조건 출구는 있을 테니까, 다 같이 출구를 찾아보지 않을래?"

"근데 민아 언니, 떨어져 다니는 건 너무 무서운데."

"그럼 우리 같이 둘러보자!"

-터벅터벅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다. 그때, 초록색 비상구 등이 보였다. 우리는 출구를 찾아 기다.

"봐봐~ 출구가 있다고 했지?"

- 과광!

갑자기 비상구 등이 꺼지며 문이 잠겼다. 그리고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지하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역시 인조인간이란 명청한 것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인조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먼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목소리의 주인은 박 회장이었다.

"비겁하게 우리를 이 공간에 가두는 건 좀 아니죠!"

소윤이가 대꾸했다.

"비겁하긴 뭐가 비겁해! 너희들이 스스로 이 TM 본사에 들어왔지 않니?"

둘은 점점 더 언성을 높혀갔다.

"둘 다 그만…!"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창피하지도 않나요? 다 큰 한 기업의 회장이 여자애랑 싸우는 게 말이 되나요? 싸울 거면 정정당당하게 싸우시지 그래요?"

"하하하! 이것들이… 어쩔 수 없네. 너희들이 정말 싸우길 원한다면… 너희의 그 소망대로 해주마… 하하하!"

박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말했다.

-위이잉.

갑자기 기괴한 기계음이 들리며 사방팔방에서 기계들이 달려들었다.

"안돼!"

소윤이는 무의식적으로 민아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소윤이는 한 순간에 로봇들에게 밟혀 으스러졌다.

"내가 만든 인조인간 킬러 로봇의 위력을 이제 알겠니? 날 얹보는 놈들은 바로 끝장이야!"

"소윤아, 소윤아? 팬찮니?"

민아 씨가 소윤이에게 말했다.

나는 소윤이와 보냈던 행복한 시절이 떠올라 울컥했다.

"어이~ 거기, 친구 안부 살필 시간은 없을걸?"

킬러 로봇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 자신의 CPU를 빼고 하이퍼 해킹 칩을 넣었다.

"나의 뇌를 이 칩에 맡긴다."

킬러 로봇이 치타같이 달려들었다. 그때 하이퍼 해킹 칩이 작동하며 순간적으로 킬러 로봇들이 마비되었다.

'후... 이 칩이 우리를 살렸다. 근데 이번에는 10배까지 끌어올렸네... 이게 가능한 건가?'

나는 하이퍼 해킹 칩을 빼고 원래 나의 CPU를 넣었다.

"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당황한 박 회장이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인조인간을 차별하나요?"

내가 물었다.

"난 차별하지 않았다. 단지 인조인간은 인간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인조인간도 염연한 지적생물체입니다. 인조인간도 말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인조인간을 차별하시는 거죠?"

"그야 당연히 인간이 인조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논리라면 인간은, 인간을 만든 자연의 도구여야 하지 않나요? 왜 인간들은 환경과 자연을 파괴해가며 편하게 살아만 가는 거죠? 우린 모두 같은 지적 생명체입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요. 세계 인권 제1조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국가에서 먼저 정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러니까... 소윤이를, 살려내..."

박 회장은 할 말이 없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 거지? 나는. 나는... 무슨 생각을...? 이렇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고등학생. 아니, 생명체들에게... 무슨 짓을..."

민아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 원래의 다정하던 아버지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또 한참 정적이 흘렀다.

결국 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내가... 용서 받지 못 할 짓을 했구나. 너의 친구 소윤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구나. 너에게 용서받을 생각 하지 않겠다. 그

럼에도 계속 사죄하겠다고 약속하마. 너의 친구, 소윤이를 꼭 살려 주마."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니.’

"내가 꼭 너의 친구를 살려주마..."

그리고 우리는 박 회장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Outro 마침내 찾아 온 평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유한아, 팬찮니? 나야, 민아."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음... 그게... 사실 오늘 반가운 손님과 함께 왔어."

"반가운... 손님이요?"

문을 좀 더 열어보니 소윤이가 있었다.

"오랜만이네, 김유한!"

그리고 소윤이가 나에게 건넨 두 번째 말은 바로...

"우리가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 낸 미래의 평화를 약 50년 전에 전한다.

그때에도 분명 불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 낼 수 있다.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From. 당신의 미래

제 5 화

미래 지구 멸망

조준석

미래 지구 없다. 우주 인간 동물 멸종 전설로 남겨져 있다. 멸망된 가운데 딱하나 머나먼 곳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별 하나... 눈에도 띠지 않는 차그마한 별 안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이곳에 사람보다 작은 우주인들이 살고 있었다. 너무 신기한 이곳 작은 별...

이곳의 이름은 빛나_마이크로 8... 이름조차 특이하다. 그 작은 우주인들이 나를 보며 신기하듯 쳐다본다. 자기들보다 내가 2배로 크니 신기하진 한가 보다.

나도 우주인들이 피규어 같은 느낌이기에 너무 웃기다.

심지어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타이탄스피커맨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이 별에도 지구와 같이 공기도 물도 땅도 있어서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못해 웃기다.

하긴 지구가 멸망했는데 나 혼자 살아남는 것도 웃겼는데 더 웃긴다. 이곳 마이크로 8...

말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뭔가 되게 신이 나 보인다. 나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다. 서로가 보면서 웃고 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온몸으로 표현했는데 물이랑 이상한 뺑과 이상한 사탕 같은 걸 준다. 믿을 순 없지만 배고프니 먹어본다. 신기하게 맛은 있다. 배고픔이 없어져서 이곳 별을 구경해 보기로 한다.

여기는 차도 없고 타고 다니는 수단이 없어서 공기는 깨끗하다. 걸어 다니기 너무 귀찮고 다리 아픈데 뭐라도 타고 싶다. 우주인들에게 다리가 아프다 표현해 봤는데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썰매 비슷한걸 타라고 한다.

썰매에 앉는 순간 자동으로 움직인다. 나는 썰매인가 공중 부양도 해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날아간다. 신기한 것도 많고 처음 본 것도 많고 갑자기 내가 살았던 지구가 떠오른다.

학교에 다닐 때 걸어가기 다리 아파서 항상 타고 다닌 자전거,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닌 자동차, 도로 위의 수많은 대중교통, 수많은 건물과 공원 너무 생각나고 그립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다. 전설로 남아있을 지구 내가 살았던 곳이다. 지구로부터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이곳에서는 지구가 머나면 옛날 이야기이겠지.

이들에게 말해봤자 모를 거고 입 아프니 말하지 말아야지. 썰매 타고 서너 시간 돌고 나니 이 별을 다 구경했다. 너무 작다. 우주인이 작으니 이 별도 작을 거고 우주인들한테는 커 보이는 곳이겠지.

우주인들이 이제는 잘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그저 밝은 것 같다. 지구는 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긴 없나 보다. 나는 자기 싫어서 더 놀고 싶어서 우주인 한 명이랑 친해져서 더 놀기로 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뭐 하고 놀지는 모르겠다. 핸드폰이라도 있음 게 임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여긴 없다.

원시시대인가.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깔깔거리며, 지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닥에 그리기 시작했다. 스키디비 화장실을 그리고 화장실 이벤트를 설명해주려고 하는데 핸드폰 생각이 너무 간절해졌다. 화장실 이벤트 하면 너무 즐거운데… 갑자기 노래도 떠오른다. 레고도 떠오르고. 로블록스 게임도 하고 싶고 아이템도 사고 싶고. 우주인이 나 혼자 신이 나는 걸 보니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 그립다~ 나의 지구여.

지구에 살 때가 좋았다. 진짜. 여긴 너무 시시하다. 재미없다. 잠도 오지 않는다. 우주인이랑 말이 안 통하니 못 놀겠다. 아 잠이나 자야지. 돌침대 같은 곳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한다. 잠이 들까 과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잠이 드는데 웃기다. 한 것도 없는데 졸리다. 내일 눈을 뜨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궁금하다.

갑자기 어디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

고 눈을 뜨는데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다 멸망했는데 강아지가 웬 말인가 하고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니 또 다른 별에 와있다.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강아지들이 “어서 와 여긴 똥강아지_멍멍 왈 21 별이야. 왈왈~” 이게 무슨 일이야. 잠들면 나 혼자 여기저기 이동하는 건가. 신기하다. 여기서 놀다가 또 잠들면 다른 별에 이동하겠지. 재밌게 놀다가 잠들어봐야겠다. 잠들면 어디로 이동하려나 지구로 가려나? 지구가 멸망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어리둥절... 다시 한번 잠들어 봐야겠다.

막상 자려고 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강아지 집에 들어가 누우니 너무 푹신하고 좋다. 내 침대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내가 키우던 몽실이가 보고 싶다. 생기발랄 몽실...

내 양말 물어뜯던 몽실이... 잘살고 있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어본다.

잠을 잔 건지만 건지 눈이 갑자기 떠진다. 여긴 어디일까. 걸어서 나가보니 집이다. 어? 지구는 멸망했는데? 이상해서 거실로 나가보니 진짜 지구다. 진짜 집이다.

그런데 나 혼자다. 거리에 사람도 없다. 고요하고 조용하다.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낡은 차들, 낡은 건물들 이게 뭐지 내가 꿈을 꾼 건가... 하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게 움직인다... 소리도 이상하다... 이게 뭘까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으니... 좀비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이야!

좀비라니... 좀비들 세상이라니... 나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여 본다. 내가 일어났던 곳으로 조용히 가본다. 내방은 맞다. 좀비 세상으로 변한지구에서 나 혼자 살아남았던 거다. 그 와중에 내가 잠들어서 꿈을 꿨나 보다. 나 혼자 지구멸망 우주여행을 했나 보다. 신기하다. 꿈이 아닌 것 같았는데...

다른 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있긴 한가 보다. 좀비 세상에서 혼자 있다 보니,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보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다른 별로 여행을 갔나 보다.

다시 그 별로 가고 싶다. 가서 우주인들과 신이 나게 놀면서 지내고 싶다. 맛있는 거도 같이 먹고 자전거도 타고 핸드폰 게임도 알려주고 싶다.

제 6 화

윤아, 민주의 일기

이라임, 장윤서, 이설아

[윤아의 일기]

내 이름은 김윤아.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5학년 아이다. 내게는 어린이집부터 같이 다니던 단짝 친구가 있었다. 단짝 친구 이름은 지선이고, 지선이와 나는 등하교는 물론 학원도 같이 다니는 아주 친한 사이였다. 그런 나와 지선이는 5학년 8반으로 같은 반이 되었다. 사실 나는 여태까지 지선이와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어서 무척 기뻤다. 개학 첫날, 1교시 쉬는 시간에 지선이가 민주라는 친구를 데려왔다. 나는 처음 보는데 지선이와 민주는 아주 친해 보였다.

"윤아야! 얘는 4학년 때 친했던 애인데 우리 셋이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주려고! 민주야! 얘는 내가 어린이집 때부터 친했던 내 단짝이야! 우리 셋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나는 좋았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데.

"지선아, 급식실 가자..."

"지선아! 같이 급식실 가자!"

내가 지선이에게 말하는 순간, 민주가 지선이에게 더 큰 목소리로 같이 가자고 했다.

사실은 개학 첫날, 지선이가 내게 같이 가자고 하는 순간 민주가 끼어들어서 지선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그리고 민주는 내게 말도 안 건다. 지선이는 나와 계속 놀고 싶어 하고,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계속 민주가 끼어들어서 나만 빼고 논다. 나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지선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는 '지선아, 민주가 자꾸 나를 소외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라고 보냈다.

그러자 지선이는 '나도 그렇게 느끼긴 했어. 근데 4학년 때 친구가 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좀만 더 친해지면 괜찮아 질 거야.'라고 했다.

나는 내가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一如既往으로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1학기 내내 나를 소외 시켰다. 게다가 민주는 내가 지선이에게 말만 하면 끼어들어서 말을 했다. 민주는 항상 내가 한마다 하면, "아 뭐 어쩌라고!"라고 한다.

결국 나는 지선이를 불러서 민주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했다.
"지선아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민주 개는 왜 그러는 거야? 개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네가 너무 착해서 민주를 받아주니까 개가 신이 나서 계속 너에게 집착하고 달라붙는 거잖아!"

"그러게... 내가 개한테 그만 집착하라고 말할게. "

지선이는 나에게 그렇게 답해주고 가버렸다.

그다음 날도, 그 다음 다음 날도 민주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하다못해 지선이가 민주에게 세계 그만 좀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날 다 같이 다니는 수학학원 쉬는 시간 민주가 큰소리로 "야 김윤아! 너 왜 계속 지선이 뺏어가? 난 친구가 지선이밖에 없는 거 너도 알잖아! 근데 넌 다른 애도 많잖아! 양보 좀 해주면 안 되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라고 말했다.

학원에 있던 모든 애들이 날 쳐다봤고,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민주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났다.

"그럼 넌? 난 너와 친해지려고 말도 거는데 넌 어찌라고 나, 무시나 하고. 그리고 너 진짜 어이없다. 내가 지선이랑 놀면 넌 개 억지로 팔짱 끼면서 나가 버리고. 왜 너 때문에 죄 없는 나와 지선이가 피해를 봐야 해?"

난 화가 난 채로 말을 쏟아낸 뒤 지선이와 함께 학원을 나가버렸다.

다음 날, 학원에 가니 민주는 혼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민주는 학원에서 왕따가 된 것이

다. 솔직히 학원에도 소문을 내고 싶었지만, 민주는 이미 학교에서 왕따였다. 지선이가 민주를 떠난 이상, 민주는 학교에서 왕따나 다름없었다. 6학년인 나는, 민주와 지선이와는 다른 반이 되었다. 지선이와는 아직도 친한 친구이고, 민주는 아직도 혼자였다. 좀 불쌍 하긴 해도, 다시 다가가기는 싫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친구는 신중하게 사귀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민주에게도 새 친구 예은이가 생겼다. 예은이는 전학을 와서 아직 민주가 왕따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나는 그저 민주가 예은이에게 집착하며 힘들게만 하지 않아 주면 좋겠다.

[민주의 일기]

난 김민주, 나는 지금까지 있던 일을 일기에 써보려고 한다. 사실 나는 개학식 그날 너무 놀랐다. 지선이의 단짝은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김윤아였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나는 친구가 지선이밖에 없었다. 그래서 4학년 때도 지선이랑만 놀았다. 그런데, 이제 지선이가 나 대신 윤아랑 논다. 난 그걸 개학식 날 처음 보고는 진짜 화났다. 그래서 지선이와 윤아를 최대한 떨어뜨리고 윤아가 나에게 말을 걸 때마다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선이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민주야 나는 너하고 윤아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윤아랑 친하게 좀 지내줘.’

나는 너무 속상했다. 나는 여태까지 지선이와 항상 친하게 지냈는데… 난 이 일로 윤아를 더욱더 싫어하게 되었다. 하지만 윤아가 계속 지선이와 놀려고 시도하자, 난 윤아에게 한 소리 했다.

“야 김윤아! 너 왜 계속 지선이 뺏어가? 난 친구 지선이밖에 없는데 넌 다른 애도 많잖아! 넌 좀 양보 좀 해주면 안 되니?”

그런데 김윤아는 내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다.
“그럼 넌? 난 너와 친해지려고 말도 거는데 난 어쩌라고 무시나 하고. 그리고 넌 진짜 어이없다. 내가 지선이랑 놀면 넌 개 팔짱 얹지로 끼면서 나가 버리고. 왜 너 때문에 죄 없는 나와 지선이가 피해를 봐야 해?”라고 화를 내고는 가버렸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화를 내야 하는 건 난데 왜 윤아가 화를 내지?

다음날, 학원에 가자 모두가 날 쳐다보았다. 이제 일을 잊으려고 친구들에게 계속 말을 걸어 보았지만, 나를 은근히 따돌리려는지 아니면 내가 싫은지 계속 무시했다. 솔직히 난 내가 한 잘못을 잘 몰라서 억울하고 다시는 김윤아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아니면 어쩌면 내가 그때 윤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셋이 잘 어울려 지냈으면 지금이 더 나아졌을까? 하, 머릿속엔 수많은 글자로 꽉 차 터질 지경이다.

“떵!”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선이와 김윤아였다. 둘은 일부러 그러는지 하하 호호 웃으며 손을 잡고 들어와 내 뒷자리에 앉았다. 웬지 모르게 보기ガ 싫었고 짜증이 확 올라왔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은 그 아이들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고 있

었다. 윤아가 나보고 왜 지선이랑 자기가 다니는 학원을 따라 들어 오냐고 한 말이 생각났다. 그 말이 맞기는 하다, 난 지선이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 학원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아직도 다니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선이랑 싸워서 그런지 재밌다고 느끼는 감정이 하나도 안 들었다.

드디어 내가 아주 손꼽아 기다리던 새 학기가 찾아왔다. 이제 얼른 6학년이 되어서, 지선이랑 김윤아를 잊고 새로운 친구들을 마음껏 사귀고 싶었다. 마침 우리 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은이였다. 사정으로 전학 온 것 같던데... 나랑 비슷한 것 같았다. 6학년이라서 예은이는 이미 애들이랑은 두루두루 다 친하다. 물론 당연히 나만 빼고. 나도 친구 좀 사귀고 싶어서, 한 번 예은이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안녕 예은아, 난 김민주라고 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제 7 화

시간 기차

정현수

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다. 그날은 등산을 가기로 했었다. 나는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나더니 나를 덮치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기절해 버렸고 몇 시간을 거기서 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밤 중에 깨어났다. 언제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깜깜한 하늘이 내 위에 있을 때 난 깨어났다. 그리고 주변에는 나무 한 그루밖에 없었다. 내가 몸을 기대려고 그 나무로 갔을 때, 그 나무 아래에 이상한 구멍이 있었다. 나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들어갔다. 들어간 그 구멍 안은 꽤 컸다. 돌아다니다 보니, 나는 그 구

멍에서 이상한 나무 발판과 돌 발판을 발견했다. 나는 나무 발판을 밟았고, 나는 절대 밟으면 안 되었을 그 발판을 밟았다.

밟은 직후, 구멍의 안은 넓어졌고, 입구는 닫혔다. 그리고 이상한 길이 생기더니 철도가 생겼다. 그리고 그 철도에서 기차가 달려 나왔다. 그리고 기차의 문이 열렸다. 기차 문이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걸어 나오며 이런 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시간 기차를 만난 당신은 운이 좋으시군요. 시간 기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타면 안 될 것 같음을 느꼈지만, 호기심에 짓눌려 결국 타고 말았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말했다.

“당신은 어떤 발판을 밟았나요?”

그리자 내가 나무 발판을 밟았다는 것이 떠올랐다.

“저는 나무 발판을 밟았습니다.”

“나무 발판을 밟으면 과거로 가는 기차를 타고, 돌 발판을 밟으면 미래로 간답니다. 돌 발판을 밟은 사람과 나무 발판을 밟은 사람이랑 같이 내려도 시간은 다르답니다.”

나는 의아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돌 발판을 밟은 사람이 100년 후 미래로 가는 역에 내렸을 때 나무 발판을 밟은 사람은 100년 전 과거에 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1시간은 밖에서는 1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늙지 않는답니다.”

나는 놀랐다. 어떻게 사람이 늙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

“만약 과거로 갔을 때에는 어떻게 다시 현재로 돌아오나요?”

“역 앞에는 발판들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이 기차의 승무원입니다.”

나는 그제야 기차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기차 안은 여러 가지의 방이 있었다. 나는 승무원에게 물었다.

“저의 방이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에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방이 생긴답니다! 당신의 방은 저기 있습니다.”

나는 승무원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의 방에 가 보았다. 방은 넓고, 침대, TV, 냉장고 등 생활용품이 가득 차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있었고, 방 밖에 나가보니, 펫샵에서 애완동물도 입양할 수 있었다. 예전부터 동물을 좋아했던 나는 애완동물을 입양하기로 했다. 애완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뱀, 거북이, 앵무새, 도마뱀이 있었고, 나는 앵무새와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했다. 입양한 그 앵무새는 아직 어렸고, 강아지는 젖을 먹여야 했다.

갑자기 배고픔이 밀려왔다. 너무 놀란 나머지 배고픔도 잊고 있었다. 나는 먹거리 골목이 있는지 승무원에게 물어봤다.

“여기는 진짜 지구만큼 크기 때문에 먹거리 골목은 당연히 있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구만큼 크다니!

“혹시 여기에는 자연도 있나요?”

“네.”

나는 신기했다. 지구만큼 크고, 자연도 있다니! 원래 가려고 했던 먹거리 골목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먹거리 골목으로 왔더니 국밥집이 보였다. 뜨끈한 국밥을 먹기 위해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국밥을 먹었더니, 황홀한 맛이 입안에 펼쳐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왔다. 국밥은 참 맛있었다. 그리고 나서 내 방으로 가 엉무새와 강아지를 돌봤다. 그렇게 20일이 지났다. 나는 여행을 하기 위해 출입구로 갔다. 내렸을 때는 1700년대였으나 웬 유럽 건물들이 보였다.

그렇다. 그때는 영조와 정조가 다스리던 시대였으나, 이곳에는 유럽의 건물이 보였다.

그 말인 즉 슨, 이곳이 유럽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로 비명이었다. 뒤를 본 나는 참혹한 장면을 보았다. 사람들의 목이 단두대에서 잘리고 있었다. 나는 이때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저렇게 될까봐 놀라서 빨리 발판을 밟았다. 이번에는 미래 여행을 하고 싶어서 돌 발판을 밟았다.

나는 동물들과 함께 40일을 기차에서 지내고 2023년에서 300여 년이 지난 2300년대에 온 나는 지옥을 보았다. 바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전부 화성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인구가 300억 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화성의 온도도 급속

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과거로 가서 이런 일을 막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과거의 지구로 가기 위해 시간 기차를 타고 과거의 지구로 갔다.

2023년, 놀랍게도 내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내가 기차를 탄 후였다. 어떻게 된 걸까? 일단 나는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리기로 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나는 계속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시간 기차를 타고 다시 미래로 가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로 결심했다. 나는 온실가스를 매우 잘 흡수하는 물질을 시간 기차에서 엄청나게 구매했고, 지구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없애서 지구의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시간 기차에서 잠이 들었다. 내가 잠에서 깨어 보니 이상하게 방의 분위기가 달랐다. 놀랍게도 우리 집의 내 방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경험이 다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엄청나게 놀랐다. 내가 기차에서 키우던 앵무새와 강아지가 있었다. 바로 내 방에 말이다. 나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밖으로 나와보니 어떤 사람이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나였다. 그것도 과거의 나. 나는 이 상황이 이상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이 진짜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설악산에 가 보니 그 구멍에 발판이 있었다. 그 발판을 밟으면 시간 기차가 올 것이고, 그곳의 승무원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서 오세요, 시간 기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8 화

정 월 화 가 피 는 고 양 이 상 점 에
오 신 결 환 영 합 니 다
한 수 빈

삼색 고양이와의 반가운 첫 만남

딸랑-

“안녕하세요, 고양이 상점입니다.”

직원의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문에 있는 방울이 깨끗한 소리를 내며 나를 반겨줬다.

고양이 상점은 진짜 고양이를 파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실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고퀄리티의 고양이 인형들을 팔고 있다. 원래는 귀여운 고양이 인형들을 파는 곳이지만 소문에 의해서는 이 인형

을 사는 사람마다 계속 실종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저 인형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에 아직도 판매하고 있다.

처음엔 경찰들도 인형에 약이 있나 의심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역시 나도 인형에 약의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호기심으로 고양이 상점을 더 많이 찾아왔다. 심지어 이 인형을 사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SNS에서도 꽤 유명해졌다. 그래서 릴리도 호기심으로 여길 와봤다.

사실 고양이 상점은 원래부터 꽃집이었다고 했지만, 장사가 잘 안 돼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고양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릴리는 원래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고양이 상점을 자주 들려서 꽃을 사거나 구경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지 릴리는 혹여나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없어 보였다.

고양이 상점은 좁아서 아득한 느낌이 드는 다락방 같은 가게이다. 문 옆에는 선반이 벽 쪽에 각각 2개가 있는데 선반에는 검은 고양이 인형들과 하얀색 고양이 인형들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양옆으로 꽃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쪽에 삼색 고양이가 한 개 있었다. 꽃들 중에서 '정월화'라는 독특한 꽃이 있는데, 정월화는 이름 그대로 정월에만 피는 꽃이라서 정월화를 파는 꽃집은 몇 안 된다. 정월화를 판다고 해도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1년에 한 번 밖에 피지 않아서 정월화를 안 파는 꽃집들이 많은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정월화는 아이리스꽃과 매화를 닮아서 매화

와 아이리스를 섞은 꽃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동안 릴리의 차례가 되자 릴리는 꽃구경을 하면서 여러 알록달록한 꽃들과 정월화를 가져가서는 구매를 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직원은 맨날 꽃만 사가는 릴리한테 뭐라도 챙겨주고 싶었는지 카운터에 앉아있는 삼색 고양이를 살포시 들어 올려 릴리에게 건네주었다. 앉아있는 고양이 인형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릴리는 책상에 올려둘 생각이다. 털이 부드러워서 마치 진짜 고양이인 것 같았다. 릴리는 신기하면서도 드디어 이걸 샀다는 웬지 모를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이걸로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여태껏 고양이 인형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았다. 꽃을 사간 적은 많이 있었지만, 인형 같은 건 그냥 구경만 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온몸이 소름에 끼치면서 아무 생각들이 들지 않았다. '이 인형은 어떻게 할까? 환불을 굳이 해야 할까? 어쩌면 미신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갈까?' 릴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환불하는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가게를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끼여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눈치만 보면 나을게 뻔했기 때문에 마음과는 다르게 상점에 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실망을 한 채로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갔다.

꿈속 같은 비밀이야기

"아무튼, 만나게 돼서 반가워."

다정한 말투로 활짝 웃어주니 나쁜 애처럼은 안 보였다.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경계심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다.

"너.. 너 뭐야? 이름은 또 뭐고?"

무서워서 그런지 긴장을 하여 말을 더듬었다.

"믿기진 힘들겠지만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고양이야. 근데 진짜 살아있는 고양이는 아니어서 이름은 딱히 없어. 그래서 네가 부르고 싶을 대로 불러도 돼"

어딘가 쓸쓸한 목소리였다. 이 고양이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걸까.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니... 그러면 지금의 너는 뭐야? 혹시 로봇이거나 그런 거야?"

지금의 과학 기술로 말하는 고양이를 만들기 힘들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아무 생각이나 말해버렸다.

"설마 로봇이겠어. 지금은 진짜 살아있는 고양이가 맞아, 하지만 보름이 지나면 난 인형으로 되돌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깐 내일이면 다 괜찮아져.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옆에서 바깥 구경이나 할 테니 넌 그만 안심하고 자도 좋아."

고양이는 애써 웃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깊이 고민하던 중 고양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안 잘 거야? 안 잘 거면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도 돼. 이 상황이 처음인 만큼 많이 혼란스러울 테니 궁금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많지만 말하자면... 아! 너 말이야, 어떻게 고양이가 된 거야? 아까는 분명 인형이었잖아."

고양이는 이런 일이 별일 아니란 듯이 침착하게 말했다.

"말하자면 난 전(?) 인형이 맞긴 해. 하지만 계속 인형인 건 너도 답답하니깐. 우리는 밤하늘이 가장 밝을 때마다 진짜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자 하늘은 이렇게 말했어. 자신은 달을 볼 수 없으니 달빛이라도 대신해서 자신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돼서 하늘과의 약속을 했지."

말을 듣고 보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더 구별이 안 되었다. 아니, 애초에 하늘이 말할 수가 있었나?

"나 말이야,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고양이라면 말을 못 하지 않아? ...더군다나 하늘이 말할 수가 있다니..."

"그런가? 애초에 난 진짜 고양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가 사 온 그 꽃 때문이야. 그 꽃은 오랫동안 달빛을 받고 있어서 달빛이 필요한 하늘한테 꼭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대신 그 달빛을 몰래 빼 오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빼 온 달빛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서 달이 뜰 때까지 기다리면서 잘 보관했다가 보름이 뜰 때마다 매년 절벽에 가서 유리병을 건네주는 거야. 한 마디로 공물 같은 것이지."

며칠 전에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런 것을 안 바쳐서 어디에 갈히거나 하는 영화들을 본 적이 있다. 혹시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건 아니겠지... "그 공물이란 거 안 바치면 어떻게 돼?"
"안 바치면 다시 고양이로 못 돌아가지 않을까... 어쩌면 인형으로
도 못 돌아갈 수 있고. 하지만 난 매년 성실하게 바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라고."
"흐음... 전혀 못 믿겠단 말이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 아무튼, 너도 공물 바칠 거면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빨리 안 올 거면 나 먼저 가고."
"조금만 기다려, 금방 준비할게."
"...."
"이제 됐지? 가자."
"응."

꽃이 편 검은색의 고양이

"언제 도착해...? 도대체 얼마나 걸어야 하는 거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까도 그 말 했잖아. 그러니깐 내 말은 구체적으로 언제 도착한
다..."
그때, 말문이 막혀버릴 정도로 예쁜 꽃밭이 눈에 들어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거봐 다 왔다고 했지? 내 말이 맞잖아.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아름다운 광경에 홀릴 듯이 말했다.
"응..."

눈을 한시라도 뗄 수 없을 만큼 멋진 풍경이었다. 꽃밭이 든 절벽에서 밤하늘을 맞이하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즐겁게 감탄하고 있는 사이 고양이가 다시 돌아왔다.

"오래 기다렸지? 병을 갖고 오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려서 말이야. 일단 여기, 조심히 받아."

고양이는 살짝 주의를 주면서 코르크가 덮인 병을 건네주었다. 병 안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붉은빛을 내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건 매년 2~3개씩 나오는 아주 희귀한 정월화야.(?) 지금은 빛이 나고 있어서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위험한 건 아니니 안심하도록 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희귀한 만큼 구하기 힘든 거니깐 절대 깨뜨리지 말고 조심히 구경해야 돼."

고양이는 진심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뭐, 나 같아도 제발 깨뜨리지 말라고 말했을 것 같다. 그나저나 이거 한번 열어보고 싶게 생겼다. 열어보면 빛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려나?

"아! 중요한 걸 안 말했네. 그거 절대로 열어보지 마. 궁금한 건 알겠지만, 호기심으로 한 번 열어봤다간 안 좋은 일이 너에게도 휘말릴지도 몰라. 네가 그 병을 구경하는 동안에는 난 고양이들을 불러올게."

생각해 보니 이거 협박 아닌가. 그래도 내 책임은 있긴 있는 거니깐 맞는 말이긴 하지.

"그나저나 다른 고양이들을 불러온다고? 너 하나만으로도 이미

귀찮은데…."

"다른 애들도 바쳐야지. 가끔 그냥 자 버리는 애들도 많다고."

"알겠어, 그러면 잘 다녀와 -"

"응, 안녕"

고양이가 손을 흔들고 난 뒤 다시 병을 구경하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눈앞에는 병이 아니라 검은색인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고 자세히 보니 몸 옆에는 인위적으로 그런 알 수 없는 하얀색의 꽃문양이 있었다. 그리고 병을 물고 있었다.

"너… 너 뭐야?"

긴장한 채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

검은색을 띠는 고양이는 몇 분이 지나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정적이 오랫동안 흐르고 나니 어쩌면 그냥 말을 못하는 평범한 고양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옹."

누가 들어봐도 고양이의 울음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냥 고양이었네…나도 참, 이젠 별생각을 다 하네. 고양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안녕"

세상에. 이제는 평범한 고양이조차 볼 수 없을 것 같네.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아까부터 고양이처럼 울었던 거야.

“본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이 병은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그 검은 고양이는 내가 다시 절벽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럼 내일 보자. 너도 내일까지 살아있을진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선 절벽에 다가갔다. 무슨 생각을 한참 고민하고 있던 그때, 무엇을 결심이라도 하듯이 절벽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바뀌었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나도 무언가에 훌린 듯이 절벽에서 뛰어내릴 뿐이었다.

행복한 고양이들의 유토피아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공간에 갇혀 있었다. 아니, 갇혀 있었다고 말하기보단 눈에 펼쳐진 모든 것이 어릴 때 꾸던 꿈속 세상 같았다. 길거리에는 고양이들이 두 발로 자유자재로 다니고 있었다. 뭉툭한 손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넥타이를 매고 마치 사람처럼 일을 나가는 모습, 옆쪽 건물에서는 조용히 여유롭게 아니어서 즐기고 있는 고양이들에 반면 옆에는 치마를 입은 새끼 고양이와 딱 봐도 장난꾸러기처럼 보이는 또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운동복을 입은 채 옆에서 시끌벅적 술래잡기하면 뛰어다녔다. 옆에서 술래잡기하고 놀았던 게 시끄러웠던지 엄마로 보이는 고양이가 꽤 날카롭게 말했다.

“줄리안, 윌리엄! 공공장소인 만큼 다른 고양이들도 있으니깐 조용히 해!”

그녀의 말에 두 아이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그만 떠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제발! 너희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 올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제법 뻔한 수법이었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선물을 못 받는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 금방 잠잠해졌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띠는 건 이런 밝고 상쾌한 분위기와 비교가 되는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만 같은 우중충한 날씨이다. 신기한 채로 고양이들을 구경하던 중 어딘가 익숙하게 보이는 하얀색 고양이가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고양이들의 유토피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놀이공원에서나 들을 법한 반가운 목소리였다. 그리고 몸 옆에는 검은색으로 그려진 알 수 없는 꽃이 그려져 있었다.

"흠, 너는 아까 그 이상한 고양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한 꽃문양을 보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베키가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 봐. 너, 아까 그 병은 도대체 왜 가져갔어? 내일 죽는다는 섬뜩한 말들도 온갖 다 해놓고선."

"하하, 처음 보는 사이에 말이 거치시네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저도 모릅니다만 대신 도움은 드릴 수 있죠. 일단 제 이름은 베시예요, 이곳의 관리자죠."

생김새와 정반대인 말투와 알 수 없는 문양까지 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병을 돌려주시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부디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물론 이게 틀려도

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그리고 보니 이건 내가 찾는 정월화잖아? 그걸 왜 저 아 이가… 분명 훔쳐간 것은…

"이 병은 내 거인데… 어째서 왜 네가 가지고 있어?"

"그렇군요…그러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그 것이 당신 것인지를 몰랐어요."

고양이는 덤덤한 채로 사과했다.

"…알겠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어색한 분위기를 남기고서 돌아가려는 그 순간 무언가의 둔탁한 것이 어깨를 두드렸다. 뒤를 돌아 보았을 때에는 하얀색의 고양이와 검은색의 고양이가 있었다.

"잠시 실례 좀, 혹시 당신이 찾으시던 분이 이분이던 가요?

커다란 눈, 이상한 검은색의 꽃문양.

"이 분은 제 회사 동료입니다만 역시라도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은 환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만난다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고양이는 말끝을 흐리게 말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귓속말하는 것처럼.

"큰일이라니…? 하지만 난 아직 멀쩡한걸."

"아, 혼잣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이곳에서 그런 걱정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는 했지만, 사람은 원래 신경 쓰지 말라면 더 신경을 쓰는 게 본능이 아닌가.

"그리고 말이야, 조금 놀라겠지만 네 직장 동료는 내가 찾고 있는 애야. 그렇지만 병을 되찾았으니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는 없어. 그럼 안녕,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간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여기에 돌아오신 이상 3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요?"

꽃이 피는 두 쌍둥이의 형제

고양이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그를 이어 검은색의 고양이가 이어 말했다.

"네가 이곳에 올 때부터 넌 이 유토피아에 시민으로 인정됐어. 애초에 너는 여기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 그 말인즉슨 넌 이곳에서 태어났고 살아왔다는 거야."

검은 고양이의 말을 듣고 외안경을 낀 고양이를 찾아봤지만, 흔적조차도 볼 수 없었다.

"어딜 보는 거야. 네가 찾는 애는 이미 도망갔다고. 이제 널 도와줄 애는 한 명도 없어졌네. 가여워라. 내가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까?"

말투에서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이 고양이밖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검은색 고양이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나가는데?"

검은색의 고양이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신나

게 말했다.

"이곳에서 구경하던 중 생각보다 간단해. 물론 내가 말한 대로만 행동한다면. 일단은 넌 숙소에서 석 달 동안만 있어. 그리고 나 같 준비가 됐다면 그 꽃이든 병에 물을 붓고 나오면 돼.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전부터 병을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삼색 고양이가 생각 난다. 하지만 이곳을 나가 고양이한테 병을 돌려주려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열어봐야 한다.

"석 달이라니? 너무 길지 않아?... 그리고 병에 물을 넣으면 어 떻게 되는 지라도 알려줘야지."

"병에 물을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몰라. 아무튼, 그 병을 들고 이 유토피아의 2층으로 찾아와. 그러면 나갈 수 있게 해줄게. 물론 석 달 뒤에 말이야"

이 도시의 2층으로 찾아오라고? 여긴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곳에서 2층으로 갈 수가 있어? 여기는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다고."

미심쩍은 듯한 말투로 물어봤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없겠지만, 눈이 오는 날씨라면 엘리베이터 같은 건 필요 없어. 눈이 오면은 눈을 통해 타고 다닐 수가 있거든."

"그것참 꿈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이네, 그러면 석 달 뒤에 봐."

눈을 통해 타고 다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눈을 탈 수 있다

면 무게 때문에 금방 가라앉혀 떨어질 텐데.

"흥, 믿지를 않네. 넌 그만 숙소로 가. 네 숙소는 'Becky's comfortable accommodation From 1768' 이야. 저기 있네. 잘 가~."

숙소치고는 이름이 많이 길었다.

"베키의 편안한 숙소? 넌 이제 숙소도 차렸구나..."

"그럼, 날 어서 오십시오 보는 거야. 나는 돈도 많다고! 물론 성실하게 일해서 별은 건 아니지만..."

"그려고 보니 베기는 몇 살이야? 고양이는 수명이 15년까지라고 했으니깐 베기, 너는 한 두세 살쯤 되겠네."

베기는 섬뜩한 말을 자주 하곤 하지만 무섭다고 하기에는 너무 나도 어린 모습과 목소리였다.

"두세 살이라고? 무슨 소릴. 난 비교적 어린 편에 속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 나이는 아마 26살일거야. 평균 나이가 93 살 정도 되니깐. 그래도 꽃문양을 수명이 조금 높아. 부럽지?"

"난 지금 막 대학을 들어간 새내기일 뿐인데. 너 나보다 나이가 많았구나."

"그럼, 물론이지. 근데 그 사이에 숙소를 벌써 도착했네. 잘 가, 석 달 뒤에 보자."

유토피아에서의 마지막 날

빗물이 쉴 새 없이 퍼붓는 날, 6시에 일찍 일어나 상쾌한 아침을 반긴다. 하지만 약속 시각은 이미 지났던 터라 허둥지둥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옷을 간단하게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병에 물을 서툴게 채우고는 급히 나가 2층을 향해 올라가던 중 앞쪽에서 맛있게 보이는 샌드위치를 음미하며 먹고 있는 고양이를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배 속은 우렁차게 소리를 내서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뭐라도 먹어야 할까 고민하던 중 현실로 돌아가 행복해할 나를 상상하며 참고 다시 2층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눈은 생각보다 튼튼한 빈백 형태로 되어있어 누구보다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2층에 도착하자 트렌치 코트를 입은 고양 이를 볼 수 있었다.

"안녕. 조금 늦었네, 그래도 괜찮아 굳이 빨리 올 필요가 없어서. 자, 아무튼 이 세계를 나가려면 일단 내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깐 의심이 된다고 무턱대고 혼자 탈출하지 말고 꼭 내 말을 따라서 탈출해야 돼, 알겠지?"

빨리 올 필요가 없다면 천천히 나와서 허기라도 채울걸. 후회되네.

"응, 일단 알겠어. 그래서 네 도움이 뭘데?"

"내 도움은 바로.... 짠! 이거야. 어때? 진짜 예쁘지 않아? 참고로 우리 회사가 만든 거야."

검은 고양이가 건네준 것은 금 색깔이기도 하고 무척 예쁜 티켓이었다.

"이제 이걸 저기 계시는 은색깔의 얼룩진 고양이 있지? 그분한테 가져다드리면 돼."

"네가 절대 안 하던 존댓말도 다하는 걸 보니, 존경하는 분이신가 보지?"

"저분은 이 유토피아를 설계한 분이신데,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은 다 그를 존경하고 대우할 걸?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고양이의 말을 듣고 얼룩진 고양이를 향해 걸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야근 때문에 많이 피곤해 보이는 듯하다.

"저기,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 커피라도 마실래요? 그리고 이 티켓으로 이곳을 나갈 수 있나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은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운이 나쁠 때는 영원히 못 나갈 수도 있어요."

피곤함에 찌들어진 목소리와 함께 무서운 소리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못 나가더라도 그 티켓을 내긴 낼 거죠? 만약 영원히 갇혀 있다고 해도 저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괜찮죠?"

맞는 말이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갇혀 있다고 해도 책임은 오직 나한테만 달린 거니깐.

"네, 괜찮으니깐 티켓은 여기 줄게요."

얼룩 고양이한테 티켓을 준 순간 하얀빛이 눈앞에 번쩍였다. 빛은 너무 반짝여서 눈이 제대로 뜨여지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는 다시 절벽에 서 있었고 그때 뒤편에서 웅성웅성하는 목소리들이

들려 뒤를 본 순간에는 랜턴을 들고 있는 삼색 고양이와 뒤에 서 있는 여러 고양이가 있었다.

"안녕~ 최대한 빨리 와 보려고 노력했는데 애들이 쉽게 잠에서 깨지 않더라고.. 그래도 거의 3분 안에 왔으니깐 괜찮지? 이제 빨리 달한테 정월화를 바치자."

"...응."

"뭐야, 내가 없는 사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 어디가 아프다거나 힘들다면 먼저 집에 가서 쉬어. 공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하지만 정말 안색이 안 좋은걸. 릴리 얼굴이 창백해.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먼저 집에 가도 된다니깐 그러네."

"드디어 돌아왔어...이거 꿈 아니지?"

볼을 꼬집어 봤더니 아픔이 느껴졌고 현실에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에 밀려오는 안정감과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또 한 번 울음이 터졌다.

"릴리는 날 볼 때마다 항상 볼을 꼬집는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려는 거야? 이곳의 인사법 같은 건가? 참 우스꽝스럽다."

고양이는 볼을 꼬집는 것이 웃기다고 생각했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웃었다. 놀리거나 비웃으려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릴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고양이가 무척이나 얄미워 보였다.

"네가 보이면 더 이상 혼자 남아있지 않은 거니깐 그렇지. 아무튼, 서로 돌아왔으니 빨리 공물이나 받치자. 자, 여기."

릴리는 훌쩍이느라 많이 쉰 목소리로 투덜거리면서 병을 꺼냈다.

"여기, 어때? 흡집 하나 없지? 내가 열심히 보관했어. 근데 물이 조금 차있을 거야."

"뭐라고? 이걸 연 것도 모자라서 물까지 넣었다니. 내가 분명 하지 말랬는데도... 빨리 줘봐."

릴리는 릴리는 손으로 물이 담긴 꽃병을 아주 조심스럽게 건네 주었다.

"... 잘 들어. 이 병에 물이 들어가면 달에게 바치지도 못할 터 오히려 달한테서 저주가 걸리고 말 거야. 지금 당장 그 유토피아로 가. 너한테서 그 이것밖에 없어요. 준 고양이로부터 다시 병을 되찾아 오라고. 빨리!"

"하지만 난 그 고양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나한테 티켓을 줬다는 건 어떻게 알아."

릴리는 결국 죄책감에 눈물샘이 또다시 터져버렸다.

"자자, 울지 말고 그 듣는다면 읽어봐."

"지금 갑자기? 일단 알겠어... 진짜 같은 고양이들의 유토피아에 초대합니다? 이게 뭐야."

티켓을 읽은 릴리는 다시 고양이를 보자 고양이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렸다. 릴리는 급하게 허둥지둥 고양이를 찾아보려고 아래를 내려 본 순간 그곳에는 삼색 고양이 대신 익숙하게 보이는 검은색 고양이가 있었다.

"안녕. 진말 필요 없이 빨리 유토피아로 가자."

고양이가 릴리의 손을 잡아 절벽 끝으로 가고 있었다.

"네가 어째서 여기... 분명 삼색 고양이가 있었는데... 설마 다 너였어?"

"다 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말하는 고양이들은 모두 없는데 말이야."

눈을 떠보니 릴리는 그저 허공에 손짓하고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릴리! 빨리 와서 점심 먹어!... 릴리!"

HAPPY ENDING :)

제 9 화

좀 비

이 재 이

에피소드 1. 좀비의 습격

내 이름은 김민재 자고 일어났더니 건물이 붕괴해 있고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다. 옷에는 피를 엄청나게 많고 그들의 특징은 혼잣말을 엄청나게 하고 피부색이 보라색이다. 난 운동 신경이 좋아 ‘그것’을 따돌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금방 물려버린다.

나는 지금 그 세상에서 1년째 버티고 있다 일단 팔다리가 없는 것들은 무시해도 되고, 아무리 물린다 해도 지혈을 하며 그 부위를 절단하면 감염되지 않는다. 혼자 지내는 것은 정말 위험해 나는 사람들을 구해 부대를 만들어 지내는 중이다. 그 부대의 이름은 언노

운 말 말 그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팀이라 그렇게 지었다. 우리 부대는 인원이 얼마 전 없어 식량이 좀 많고 총기도 넉넉하다. 하지만 힘이 약해 다른 곳에서 침략이 오면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거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시팀을 만들어 지내고 있지만, 총을 쏘는 순간 좀비라 불리는 그것이 몰려들어 밤에는 쉽게 총을 쏘지 못한다. 그래서 무전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식량 확보를 위해 순찰을 하던 중 체급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다가갔더니 총을 내밀며 이야기했다.

“가까이 오지 마! 너희가 감염자면 나만 고생하는 거야. 저리 꺼져”

나는 몸에 상처 부위가 없는 것을 보여주었고 결국 우리는 같이 다니기로 했다. 그 사람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격이 사나워 칼이라 부르기로 했다.

에피소드 2. 침략

어느 날 칼이 사라지고 우리 감시 팀이 죽었다. 다른 부대가 침략을 온 것 같아 다들 총을 준비하고 대기시켰다. 하지만 상대 인원은 너무 많고 밖에 좀비들이 몰릴 수 있어 우리는 그 부대를 따라가야 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 칼은 그 부대에 속해 있었는지 같이 있었다. 칼은 우리한테 미안했는지 밥에 몰래 마스터키를 넣어 놨다. 나는 기회라 생각하고 문을 따

바지에 숨겨 놓았던 칼을 꺼내 감시원들을 암살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고 상대 부대의 창고에 들어가 총을 훔쳐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에피소드 3. 전쟁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히 움직이고 되도록 총소리가 들리지 않게 칼을 던져 적을 죽였다. 그러다 상대가 눈치를 챘는지 상대도 총을 들고 대기를 시킨 것 같았다. 우리는 보이지 않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여 사살했다. 그러다 갑자기 칼이 나타나 우리를 위협했다. “죽기 싫으면 총 내려놓고 항복해 그러는 게 죽는 사람 없이 좋게 끝날 거야.”

우리는 싫다고 대답하고 도망쳤다. 칼도 우리를 쉽게 죽이려 하진 않았다. 그리고 걸어가다 다리에 총을 맞아버렸다. 적들에게 위치가 발각된 것이다. 내 동료는 총을 맞은 나를 업고 빠르게 숨었다. 하지만 내 피 때문인지 쉽게 잡혀버렸다 우리가 죽을뻔하던 순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에피소드 4. 동맹

밖에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갔더니, 좀비들이 총소리를 듣고 떼거리로 몰려 와있었다. 그러다 너무 많은 숫자가 밀려와 벽도 한계였는지 ‘지지－직’ 소리를 내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잠깐 동맹을 맺어 좀비만 죽이기로 했다. 그 순간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좀비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그 순간총을 쐬지만, 상대는 너무 많아 일단 후퇴했다. 우리는 창고에 가 총알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했다. 그리 많은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좀비 수가 너무 많아 지능이 없는 애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지붕으로 올라가 사격을 시행했다. 그 순간 내 머리카락을 스쳐 총알이 지나갔다.

나는 너무 놀라 엄청난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다.

“죽을 거면 너도 같이 죽던가 아직은 우리 서로 싸울 상황이 아니야. 조금 기다려.”

나는 애써 안 놀란 척했지만, 지붕 끝자락으로 가 총알을 맞는 것을 피했다. 계속해서 총을 쏘던 도중 총소리를 너무 많이 냈는지 계속해서 좀비들이 몰려왔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장난감을 던져 좀비들을 따돌린 뒤 우리 팀원들과 함께 부서진 벽을 통해 탈출 하여 미친 듯이 달렸다. 우리는 기지에 도착해 식량과 총알을 챙겨 밖으로 도망쳤다. 상대가 언제 와 우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 엄청나게 멀리 도망쳤다.

한 달 후...

우리는 아직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밤이 되면 근처 폐가가

보이는 곳에서 잠을 청한다. 오늘도 지낼 곳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가다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발견했다. 그 건물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건물로 들어가 제발 같이 지내자고 빌어 겨우 같이 살게 되었다.

그 무리의 대장은 ‘체이스’로, 외국에서 살다 온 것 같았다. 비교적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외국어를 썼지만, 통역가가 있어서 대화는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였다.

에피소드 5. 백신

우리는 몇 주 동안 지내다 어느 과학실을 발견했는데 거기를 보니 무슨 연구를 하는 것 같아 체이스한테 물어봤다.

“What are you doing in this lab?”

(이 실험실에서 뭘 하는 거예요?)

“We're working on a vaccine, but we can't experiment with it because we don't have enough ingredients.”

(백신에 대해 실험을 하는 건데 재료가 부족해서 실험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What's that ingredient? I'll bring it to you no matter what.”

(그 재료가 뭐예요? 어떻게든 가져다드릴게요)

“It's a rare blood type.”

(바로 희귀 혈액형입니다)

체이스가 말한 혈액형은 RH- 혈액형이었다. 그러자 우리 팀 인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오더니 자신의 혈액형이 RH-라는 것 이었다. 그러자 체이스는 엄청나게 애원하며 우리에게 부탁했다. “Can't we do a vaccine trial using you, please? I just need a little blood from you.”

(당신을 이용해 백신 실험을 조금만 하면 안 되나요? 당신의 피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자 그 팀원은 백신에 대한 개발이라면 뭐든 괜찮다며 허락했다. 그렇게 진행된 실험은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어디서 어떻게 만 들어진 건지 몸에 어떻게 들어온 건지 알아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백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백신을 만들어가던 어느 날, 체이스가 과학 연구원들과 기뻐하며 드디어 완성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쟈비를 잡아 뒷줄로 묶어 놓고 백신을 주사기 안에 넣어 주사기를 꽂았다. 그러자 보라색이었던 피부색은 점점 하얗게 돌아오더니 터질 것만 같았던 핏줄은 조금씩 진정되며 부기가 가라앉았다. 그러자 갑자기 기절하며 하루라는 시간이 또 지나갔다.

그 남자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그 남자가 일어나자마자 한 것은 바로 그동안 먹은 것을 계워 낸 것뿐이었다. 그동안 먹은 게 사람 살점과 피밖에 없으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는 진정이 된 뒤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쟈비에게 물리니 엄청나게 따가운 고통이 들더니 의식을 잃었는

데 다시 깨어나 보니 몸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의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점점 눈이 보이지 않더니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만 좋아졌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쪽으로 몸이 움직이고 좋은 냄새가 나서 바로 물어뜯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야기를 들은 뒤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백신을 넣을지 고민에 빠졌다. 일단 우리는 RH- 혈액형 없이도 백신을 만들 순 있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약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만들었다. 그 수는 약 인구에 절반 2,500만 개를 만들었다. 그 기간은 약 3년 우리는 밖에다 폭죽을 뿌려 좀비들을 몰리게 하여 백신을 계속해서 넣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으로 만든 좀비는 약 5만 명 그래 봤자 계속해서 좀비가 나왔다. 슬슬 포기할 무렵 체이스는 무슨 실험을 하였다.

액체만 살점에 닿아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좀비를 잡아 살에 뿌렸다. 그러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좀비가 계속해서 사람이 되어가고 결국 성공했다. 우리의 작전은 이렇다. 총소리로 좀비를 최대한 많이 모아 위험해진 것 같으면 소리가 큰 폭죽을 던져놓고 도망치는 거다. 그리고 숨어있던 다른 팀원들이 물총에 백신을 넣어 뿌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송도, 서울, 대전까지 뻗어나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료했다. 하지만 우리가 총으로 죽인 인원 때문인지 인구 수는 5,100만 명 중 100만 명은 죽은 것 같았다. 그리고부터 3년 뒤 우리는 배를 타고 마지막 위치 제주도를 가는 중이었다. 놀랍게도 제주도는 아무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생

각해 보니 좀비들은 수영을 못하고 소리에만 반응하니 멀리 떨어진 제주도나 섬들은 바이러스에 걸릴 일이 없다는 걸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극복하고자 다른 나라의 도움까지 받아 계속해서 성장해 와 무너진 건물들, 좀비가 되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에 가족들에게까지 모두 위로 금을 주고 건물도 새롭게 지어졌다

에피소드 6. 또 다른 좀비

이 일이 일어난 지 약 17년이 넘은 것 같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중 요즘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내 몸 상태가 이상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면 그때 동안은 피부가 연보라로 변해있고 이빨은 앞니가 엄청나게 날카로워지고 갈증이 심해졌다.

5개월 뒤에 난 체이스에게 찾아가 백신을 받았다. 나는 백신을 투여받은 이후에 조금 팬찮아졌다. 15년 전 좀비에게 스친 이후로 바이러스가 숨어있다가 갑자기 폭진 모양이다. 체이스는 나에게 얘기했다.

“The virus has been left in your body for 15 years. It's a slightly modified virus, so it may not be cured.”

(15년 동안 네 몸속에 방치되어 있던 바이러스라 조금 변형되어 치료가 안 될 수 있어)

나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집에 가 가족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나는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몰려오더니 내 몸이 제어되지 않았다. 15년 전 그 바이러스처럼 말이다. 나는 내 몸이 제어가 안 되고 결국 좀비와 다른 바이러스였지만 뭔지 모르는 괴물로 바뀐 것 같았다. 내 몸이 제어되지 않고 내 몸은 근육이 불어나고 피부가 팽창해지며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다가 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제 10 화

주 한 이 의 일 기

윤 예 원

어느 무더운 토요일 오후였다. 보통은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즐기곤 했지만, 이날은 조금 다른 달랐다.

"오늘은 마트에 같이 갈래?"

엄마가 물었다. 기대를 가득 안고 "네!"라고 대답했지만,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걱정스러웠다. 이런 날에 마트로 가는 건 이상하다. 더군다나 집 바로 앞에 마트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차를 타고 아주 멀리 있는 마트에 갔다.

마트에 도착해서, 엄마는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를 찾아 밖을 서성거리다 보니 날 버린 부모가 언론에서 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내가 버려졌을까?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배도 고파지고 추워졌다. 그래서 집으

로 돌아가고 싶었다. 엄마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전에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뭐해 여기서?”

대답할 수 없었다. 말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 뒤에 따라갔다.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집에 도착했다.

“여기 앉고 차라도 마셔.”

마셔보니 온몸의 피로가 썩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가 CEO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해 어딘가에서 들은 듯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 곳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나는 그 제품을 테스트할 사람이었다.

그 후, 나는 그 집에서 머물며 새로운 제품을 사용해 보고 평가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은 즐겁기도 하지만, 나는 진짜 가족을 찾고 싶었다.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런 환경도 좋지만, 새로운 가족을 찾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약속했다. 며칠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혹시 잊힌 건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들린 희소식.

“찾았다! 드디어 너의 새 가족이 되어준다는 사람들을 찾았다!”

“정말이요? 그럼… 그분들은 언제 만날 건가요?”

“글쎄… 일단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번 물어보마.”

너무 기뻤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신난 적이 없던 것 같을 정도로 아주 기뻤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할아버지는 어떡하지? 괜찮으실까… 그래!
괜찮으시겠지. 고작 내가 떠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며칠 후, 나는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분들을 만났다. 다들 착하고, 친절해 보였다. 너무 기대된다. 이런 분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라니.

“안녕? 네가 주한이니? 우리가 이제부터 너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줄 거야.”

“안녕하세요.”

처음엔 잘 대해주셨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놀이공원 같은, 아주 재미난 곳으로 가기도 했었다. 물론 회사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끔 아주 늦게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도 돼서 좋았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가족과 있어도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바로 할아버지였다. 새엄마, 새아빠를 만난 후에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엄마에게 가서 할아버지께 연락해도 되느냐고 물어봐도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이 왜 연락하는 것을 막았는지 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00 뉴스입니다. 오늘 다를 내용은 조금 충격적인데요, 바로 00회사의 CEO, 김00이 집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에 의한 죽음이라고 밝혀져, 경찰들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꽤 충격적이었다. 한때 나를 돌봐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그것도 누군가가 일부로 할아버지를 죽였다니. 너무 슬퍼서 눈

물조차 안 나온다. 나는 방에 들어간 다음에야 실컷 울었다.

‘왜? 누가 할아버지를…’

그다음 날 나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밥 먹을 준비하였다. 오늘은 부모님께서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는 쪽지를 남겨 놓으시고 나가신 모양이다. 오늘따라 너무 우울했다. 이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자 휴대전화를 든 순간, 할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았다는 뉴스가 떴다.

“안녕하세요. 00 뉴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00회사의 CEO, 김00씨를 죽인 범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박00 씨와 최00 씨라고 합니다. 박00 씨와 최00 씨는 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어...? 저 사람들은... 내 새엄마, 새 아빠잖아... 도대체 왜... 그럼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것도 경찰서에 갔다 온다는 거잖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여태 범죄자의 집에서 살아온 거잖아...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도망친다면 나는 집이 없는 노숙자가 될 거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기다려 보자...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잖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제는 거의 반죽음 상태이다.

‘죽을 것 같아... 집에 남아있는 음식도 없고... 제발 누가 와주었으면...’

그렇게 포기했을 때, 누군가 집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한번 찾아보자.”

“으… 살려… 살려주세요…”

“어? 누군가 여기에 있는 게 분명해! 소리가 저쪽에서 났는데…

헉! 팬찮으세요? 빨리 와서 이 사람을 구급차에 옮겨!”

나는 구급차에 옮겨진 뒤 병원에 도착했다.

“음…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서 생긴 영양실조입니다. 병원에 머물러서 치료받도록 하죠.”

그렇게 나는 병원에서 지내며 회복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나를 입양해 주신다는 분들이 나타나셨다. 비록 두 번이나 버림받았지만, 착하고 선한 두 분에게 입양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을 것이다.

제 11 화

오른손의 저주, 그리고 오른손의 축복

박시은, 이하은

1화 학교폭력과 오른손의 비밀

다송천중 새 학기, 시아가 전학을 왔다.

“안녕 애들아 만나서 반가워 ^_^ 내 이름은 김시아야. 1년 동안 잘 부탁해!”

“애들아 안녕? 난 1년 동안 담임을 맡을 김수정이라고 해!”

‘새 학기라 그런지 너무 어색하다… 간식 주면서 얘기해 봐야지!’
시아가 뒷자리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넌 이름이 뭐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최수민이야!”

“나는 아까 말했듯이 김시아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나도 드디어 친구가 생긴 건가..? 찐친이 되면 좋겠다!’

“애들아 이제 수업하자. 수학 10쪽 펴라.”

시아는 쉬는 시간에 찐친를 만날 생각에 수업에 집중을 못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자, 시아는 바로 베프에게 달려갔다.

‘몇반이라 그랬더라..? 아, 3반!’

3반에 도착하자 시아가 말했다.

“한윤서! 나 왔어, 김시아!!”

“시아야 내가 우리 학교 소개해 줄게! 나만 따라와!”

시아가 윤서를 따라다니며 안내를 받았다.

“여기는 1층! 우리 급식실! 여기서 밥을 먹어!”

“저기는 어디야..?”

“여기는 편의점!! 급식 말고 먹거나 배고플 때 오면 돼!”

음악실, 도서관 등 윤서가 시아에게 학교를 소개해 줬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끝나 시아는 교실로 갔다.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수민이와 얘기했다.

“수민아, 우리 학교 끝나고 놀래? 내가 떡볶이 사줄게”

“그래, 좋아! 근데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가도 돼?”

“응, 당연하지!”

‘더 데려와 준다면 나야 고맙지.. 오히려 친구가 더 생길거니까!’

학교가 끝난 후 시아는 친구들과 떡볶이집을 갔다.

‘시아가 내 친구들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좀 있다 얘기 해야지.’

그리고 수민이가 제안 했다.

“우리, 떡볶이 먹고 우리집 가자!”

우리는 함께 떡볶이 집으로 향했다.

“시아야 안녕? 난 이하영이라고 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안녕. 난 박서빈이라고해!”

떡볶이를 다 먹고 수민이 집에 갔다. 그러자 수민, 하영, 서빈이 시아를 부른다.

“야 김시아. 너 가까이 와 봐.”

“애들아 왜 그래..”

“우리가 친군 줄 알았어?”

두려움에 감긴 시아가 덜덜 떨며 말했다.

“애들아.. 나 무서워, 하지마..”

“야 김시아 꽉 잡아! 놓치지 마!”

－퍽퍽

아이들은 시아를 때렸다.

‘제발 그만.. 너무 아파..’

“야, 이제 가자. 김시아, 빨리가.”

시아는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도착한 후, 시아는 자신한테 화 가나고 슬펐다. 이제 수민이가 너무 무서워졌다.. 시아는 울다가 잠에 들었다.

2화 학교폭력과 오른손의 비밀

서늘한 공기가 서서히 불어왔다. 아침이 되었고, 어수선한 아침소리에 시아는 눈을 떴다. 어머니는 아침밥을 준비중이셨고, 동생은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아 일어났어? 어제 학교는 어땠어? 엄마가 어제 일찍 자서 시아 얼굴을 못보고 잤네.”

시아를 걱정하시는 시아 어머니의 물음에 시아는 거짓말을 했다.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다 착해요...”

“다행이네, 얼른 씻고 나와서 밥 먹어.”

“네.”

시아는 쫓기듯 빠른 속도로 밥을 먹고 집을 나왔다. 그러곤 학교 화장실로 들어갔다.

“흑..흑..왜 나한테 그러는건데...”

시아는 화장실 첫번째 칸에 들어가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터벅 터벅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왔다.

“야...ㅋㅋ 애 울어? ㅋㅋㅋ”

수민이의 목소리 였다.

“김시아야? ㅋㅋㅋ 겁나 웃기네”

최수민의 무리 친구들이 동조했다. 시아는 애들의 목소리만 들은 채 아무것도 못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진들의 목소리만 들으며 우는 것 뿐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교시를 알리는 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덜컹..덜컹 덜컹'

화장실 칸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시아는 패닉에 빠졌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곧이어 청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거기 누구 있니? 수업 시작 했는데? 어머, 뭐니?”

‘철컹..쿵, 끼익’

아주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나는 감사하단 말도 못한채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교실로 들어갔다.

‘드르르륵.....’

반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시아에게로 쏠렸다.

“시아 빨리 앉으렴, 다음부턴 늦지 마.”

“네...”

시아는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일진 무리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애써 무시한 채 오른손으로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눈 앞에 환청이 보이기 시작했다.

‘끼이익..쾅’

‘뭐지? 엔 내 짹꿍 진우잖아...? 진우가 왜 차에 치이는 장면이 보이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보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머릿 속을 울리기 시작했다. 시아의 눈앞이 어두워진 채 늙은 할아버지 느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제부터 당신이 오른손으로 당신이 현재 소유한 학용품을 만질 시, 주변 친구들의 죽음이 보입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구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2. 그러나 친구의 죽음을 막을 시 당신에게 위협이 들이닥칠 것이다.

3. 그 위협은 당신이 알 수 없다.

‘말도 안돼.. 오늘안에 진우의 죽음을 막아야 해!’

학교가 끝나고 시아는 진우에게 말을 걸었다.

“진우야 오늘 학교 끝나고 시간 돼?”

“응, 왜?”

“오늘 끝나고 분식집 가자.”

“그래!”

한창 떡볶이를 먹다 밖을보니 죽음이 보였던 시점에서 본 차가 같은 위치에서 스윽 지나갔다.

“살렸다...!”

“오늘 즐거웠어.”

“응 나도! 안녕.”

진우와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 갑자기 차 2대가 나를 향해 달려 들었다.

“꺄아악! 방금 뭐였지? 큰일 날 뻔 했잖아!”

시아는 놀란 마음을 움켜잡고 집으로 갔다.

‘한 번 더 죽음을 봐 볼까?’

시아는 책가방에서 필통을 꺼내 오른손으로 연필을 잡았다. 그때 시아 반 반장 민지가 시아의 집 밑에서 떨어지는 화분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 우리 집 로비라고?’

“엄마 저 잠시 로비 좀 다녀올게요!!!”

“어머,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시아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민지야!! 서민지!”

시아가 다급하게 민지를 불렀다.

“어? 시아 안녕,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민주의 물음에 시아가 답했다.

“너야말로 여긴 왜 온거야?”

“난 엄마 심부름 도와주르...”

“조심해!!!!!”

쨍그랑-

화분이 민지의 머리위로 떨어지려 하자, 시아는 곧바로 민지를 안고 피했다. 민지가 말했다.

“헐... 민지야 고마워...”

“어? 응!”

시아는 내심 뿌듯 했다. 그렇게 민주와 헤어지고 시아는 침대에 누웠다.

‘뭐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렇게 시아는 안심하고 잠에 들었다.

“하아암 졸려.. 벌써 아침인구...꺄아아아아악!!! 이게 뭐야!”

시아는 눈 앞에 보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유체이탈이 된 것이다.

시아는 갑작스레 유체이탈이 되어서 놀랐다.

“근데 이게 위험인가? 왜지?”

시아는 의아한 상태로 밖을 돌아 다녔다.

“어? 저기 나처럼 발이 떠있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도 유체이탈을 했나봐!”

시아는 똑같이 발이 뜬 상태로 날아다니는 생명체를 보았다.

“근데 만약 저게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라면...? 내 몸을 뺏길 수도 있다고 인별그램에서 봤는데?”

그 순간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생명체 7명이 시아네 집을 향해 달려갔다.

“안돼! 몸을 뺏기면 난 평생 이 상태로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3화 학교 폭력과 오른손의 비밀

다른 생명체들을 제치고 시아는 집으로 먼저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는 학교 가는게 두려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 수업을 들었다. 근데 샤프를 만졌는데 한 친구의 죽음이 보였다

‘이번엔 별로 안 친한 아이인데... 그래도 살려줘야지!’

쉬는 시간에 시아는 그 친구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을 하였다.

“근데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학교가 끝난 후, 시아는 그 친구의 뒤를 따라갔다. 신호등을 건너

던 중, 오토바이가 친구에게 달려들었다. 그래서 시아는 빨리 몸을 던져 친구를 구했다.

“너 팬찮아? 다친 텐 없지?”

“응 난 팬찮아. 너는?”

“난 안 다쳤어. 정말 다행이다.”

“나를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 친구하자!”

“응 좋아! 넌 이름이 뭐야?”

“난 유진아야. 반가워!”

“응 반가워!”

시아는 이제 자신한테 올 불행이 무엇일지 걱정스러웠다. 그날 저녁, 시아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어떤 남자가 뒤를 따라 왔다. 시아가 빨리 걸으면 그 남자도 빨리 걸었다. 시아는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시아는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그 남자는 14번이나 문을 두드리고 갔다. 시아는 겁에 질렸다.

“이게 이번에 겪게 될 불행...?”

시아는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고민하면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시아는 밥도 못 먹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시아 책상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김시아 바보’

‘김시아 돼지’

‘김시아 #####’

시아는 기분이 나빴지만, 수업 준비를 하려고 필통을 꺼냈다. 지우개를 잡는데, 네 번째의 죽음이 떠올랐다. 그 애들은 차에 치여서 죽는 것이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시아를 괴롭힌 일진들이었다. 시아는 당황했다. 애네를 살릴지, 죽일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래, 결심했어. 그래도 살리는거야!”

시아는 결심했다 살리기로.

4화 학교폭력과 오른손의 비밀

‘암호를 대시오(4자리 숫자)’

“뭔소리야!! 거지같아!!”

“거기 누구니? 김시아! 요즘 자주 집중력이 흐려지네? 시아야, 조금만 집중하자!”

“네...”

시아는 마음을 먹고 일진 무리를 살리려고 했는데, 대뜸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나와서 놀란데다, 갑자기 암호를 데라는 명령에 그만 수업 중 소리를 질러버렸다.

‘하... 암호는 또 뭐야? 기꺼이 마음잡고 일진 무리 살리려 했더니 만, 갑자기 아무 힌트도 없이 암호는 뭔 암호야?’

시아는 점점 1분 1초가 견디기 벅거워졌고, 슬슬 짜증이 났다. 생각해보니 그 일진 무리 때문에 이 지경이 됐고, 부모님과의 갈등과 동생과의 다툼, 사회적인 생활에 모두 지장이 생긴 것만 같았다. 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쉬는 시간이 되자 또 지긋지긋한 일진 무리의 목소리가 들려 왔고, 시아는 후드 집업을 덮어쓰고 책상에 홀로 엎드려 울먹 였다. 그러자 일진 무리가 다가와 내 책상에 앉았다.

스윽 스윽, 사각 사각-

모자를 올려 앞을 보니 일진 무리가 내 책상에 낙서를 한 뒤, 연필을 깎고 연필 찌꺼기를 모두 내 책상에 버리고 있었다. 시아는 익숙한 듯 다시 모자를 내리고 엎드렸다.

수업이 끝난 뒤,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학원을 다니지 않는 시아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헉헉...’

시아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였다.

“시아 왔니? 뭘 그렇게 힘들어 해?”

시아의 어머니가 시아를 반겨주셨다. 그러나, 시아는 오늘 있었던 억울한 마음을 표출하며, 어머니에게 화를 내었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짜증 나 죽겠는데 계속 말을 걸어?”

“시아 너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시아는 엄마의 말은 무시한 채,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며 방문을 닫았다. 안방에선 엄마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려왔지만, 사춘기인 시아는 그것마저 화가 나, 가방에 짜증을 표출하며 책상에 앉았다.

‘일진 무리의 죽음을 내가 살리는게 맞나?’

시아는 책상에 앉아 일진 무리를 살릴까 말까를 생각하다 약 3시간을 고민했다. 고민 끝에 결국 살리기로 마음을 먹은 시아

는 천천히 암호를 추리해 나갔다.

“역시 1234랑 0000은 아니네...”

시아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추리를 이어나갔다.

“처음에 내가 준우를 살리고 나에게 위협이 왔을때 날 박으려 했던 차는 2대, 반장 민지를 살리고 내가 유체이탈을 했을때 내 몸을 탐낸 귀신은 7명... 좋았어! 암호는 2743이야!”

삐—삐

‘뭐야? 아니라고? 그럼 거꾸로 해서 3472인가?’

띠리리링

시아의 귀에 맑고 청량한 음향 효과가 울려퍼졌다. 그와 동시에 시아의 앞에 또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 시아는 또 유체이탈을 한 것이다. 유체이탈을 한 시아는 일진무리를 살릴 수 있었다.

“꺄악! 야 박서빈 조심해! 수민이 너도!!”

“방금 차가 우리 박을뺀한 거야?”

“응응. 김시아 그 기지배 때문인가?”

“그런 것 같아. 개는 인상부터가 싸해...”

시아는 자신의 욕을 하는 일진 무리에게 기분이 나빴지만, 사람을 살렸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전기장판을 25도로 맞추고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시아는 서서히 눈을 떴다. 그런데 시아의 눈 앞엔 방천장이 아닌 다른 것이 보였다.

“으아아아악 깜짝이야! 누구세요? 여긴 어디인가요?”

“정신차렸니?”

처음에 들었던 늙은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출처는 하얀 옷과 가면을 착용한 바로 내 앞에 있는 의문스러운 사람이었다.

“넌 죽었어.”

뜬금스러운 말에 시아는 의문을 품으며 대답했다.

“네..?”

“여긴 사후세계이다. 시아 너는 잠을 자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제가 죽었다뇨? 설마 일진 무리를 살린 대가인가요?”

아저씨는 고개를 휘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네 절친있지?”

“절친이라면..설마 윤서요?”

“그래 네 절친. 그 아이도 너와 같은 능력이 있었어. 어제 새벽에 한윤서는 너의 죽음을 봤어. 근데 윤서는 너의 죽음을 무시했지.”

“거...거짓말! 윤서가 그럴리 없어요...”

나는 울먹거리며 아저씨의 말을 막았다.

“윤서는 일진 무리의 죽음을 막아줬으나, 절친이었던 너의 죽음은 무시했다. 다시 이승으로 내려갈 수는 있으나, 규칙이 있다. 현생으로 가는 대신 윤서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돌린다면 저주도 사라지고 지난 1학기 때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 대신, 돌리지 못 한다면... 뒷 일은 상상에 맡기지.”

시아는 잠시 고민했다. 상황도 상황인데다 삶이 점점 막막해

쳐 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아는 바로 현생의 선택을 했다. 그러자, 아저씨는 바로 현생으로 보내준다고 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다시 눈을 떠보니 따뜻한 이불 속 이었다. 책상 위 시계의 바늘은 어김없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다. 이불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공기가 불어오고 창문 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침이었다. 시아가 문밖으로 나가 준비를 마치고 아침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속상해 보이셨다. 시아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급한 것은 따로 있기에 일단 아침을 빠르게 먹고 학교로 향했다.

‘2교시밖에 시간이 없으니 최대한 윤서의 마음을 효율적으로 돌려놔야해.. 윤서는 내가 살아있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시아는 교실에 책가방만 내려 놓은 채 윤서의 반인 3반으로 달려갔다.

“윤서야!!”

시아는 윤서를 불렀다.

“어? 시아 안녕!”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윤서의 말투는 꽤 뜼해져 있었다.

“윤서야 이거 가져!”

시아는 윤서에게 윤서가 평소에 가지고 싶다고 말했던 나삼키 브랜드 양말과 학용품 세트를 선물로 주었다.

“고마워...”

윤서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채 대답했다. 이후 2교시 쉬는 시간까지 지나고 시아는 열심히 윤서에게 다가가며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시아는 신난 표정으로 오른손으로 학용품을 들었다. 아무런 반응이 생기지 않았다.

“뭐야! 못 돌려놓은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아는 절망스러웠다. 절친이라고 생각한 윤서까지 나에게 이런 마음이라니. 시아는 정말 살기가 싫어졌다. 교실로 돌아간 시아에게 일진 무리는 어김없이 시비를 걸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던 시아는 일진 무리를 쳐다보며 사납게 반응하였다. 그러자 일진 무리는 잠시 당황한 뒤, 시아를 끌고 옥상으로 갔다. 시아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듯했다.

“실컷 때려도 좋아.”

시아가 말했다. 그러자 일진 무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정없이 시아의 팔을 붙잡고 등을 때렸다. 실컷 맞은 시아는 화장실로 갔고, 일진 무리는 교실로 갔다. 시아는 아픈 등을 부여잡고 화장실 거울을 보며 서서히 입고 있던 스웨터를 올려 등을 확인했다.

“어라? 등이...회복되었어...!”

5화 오른손의 저주, 그리고 오른손의 축복

시아의 상처는 회복되었지만, 아픔은 여전했다. 시아는 일진들에게 또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니. 오늘은 어땠어?”

“뭐... 재밌었어요... 피곤해서...”

“그래 시아 요즘 많이 피곤하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 엄마는 다 알아.”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데 왜 자꾸 말 걸어요.”

“시아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너 여기 앉아봐.”

“아니, 하...”

“시아야 네가 요즘 힘든 건 아는데, 엄마한테 얘기는 해줘야 엄마가 이해를 하지. 무슨 일인데? 말해봐.”

“아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피곤한 사람을 건드려요.”

시아의 모습에 당황한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하...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시아는 문을 쿵 닫고 방으로 들어왔다. 저녁이 되어도 밥도 안 먹고 방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다. 시아는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 결국 잠에 들었다.

그 시각 서빈이는 단톡방을 개설해, 친구들에게 시아의 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시아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영상을 보냈다.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깬 시아는 메시지를 확인하

였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했다고... 흑흑
흑”

다음날, 학교에 간 시아는 형광펜을 집었는데 같은 반 친구 3명의 죽음이 스쳐 지나갔다. 3명의 죽음은 다 연쇄살인마 때문이었다. 연쇄살인마의 특징은 최근 경찰이 수배 중인 사람과 비슷했다. 살인을 하는 장소의 특징은 나무가 많고, 가로등이 적은 곳이었다. 살인하고 난 뒤 맨션으로 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시아는 고민에 잠겼다.

한참을 고민한 시아는 꿈에 나온 친구들을 똑같은 날에 불러서 파자마 파티에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얘들아, 오늘 저녁 8시쯤 학교 앞에서 보자.”

“그래.”

아이들은 학교에서 만나 함께 시아의 집으로 향했다. 시아는 한 편으로는 신났지만 한 편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 데려왔어. 오늘만 우리집에서 자도 되지?”

“응 당연하지!”

매번 시무룩하던 시아의 모습만 보다가,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로 한다.

“얘들아 우리 뭐 할까? 하고 싶은 거 있어?”

“음... 보드게임 있어?”

“당연하지. 할리갈리 있어.”

“우와! 그럼 그거 하자!!”

“그래.”

그렇게 새벽까지 논 시아와 친구들은 아침밥까지 함께 먹고 학교를 등교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즐겁게 학교에 온 시아는 즐거움도 잠시, 지난 번 꿈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연쇄 살인마가 죽인 장소에 있던 나무들은 15개, 가로등은 2개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어. 잘 기억해야 해’

학교가 끝난 후, 시아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 안은 무척 고요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찾고 계신 연쇄 살인마에 정보를 알아내서, 도움이 될까해서 찾아왔어요.”

“아 정말요! 여기 보고서 드릴 테니 작성해 주세요!”

- 연쇄 살인마가 살고 있는 곳: 맨션
- 살인을 저지르는 곳: 나무가 많고 가로등이 적은 곳
- 시체를 묻은 장소: 안다산 뒷쪽
- 연쇄 살인마의 나이: 34살
- 연쇄 살인마의 이름: 김예찬
- 연쇄 살인마의 키: 178~9cm
- 연쇄 살인마가 죽이는 특징: 칼로 목을 찔러 죽인다.

“고마워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시아는 경찰서를 나온 후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후 시아는 피곤이 몰려와 낮잠을 잤다. 다음 날이 되자, 일진들은 계속해 시아를 괴롭혔다.

“야 매점에 가서 빵 좀 사와. 초코빵으로”

“난 피자빵 그리고 우유까지”

“응...”

시아는 괴로웠지만 참아내며 매점에 갔다. 시아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치쳤다. 어느덧 경찰서에 다녀온지 일주일째. 시아에게 메시지 하나가 도착하였다.

마지막화 오른손의 저주, 그리고 오른손의 축복

“카톡에도 욕설이랑 내 흑역사가 너무 많잖아. 박서빈, 최수민, 이 하영 그 기지배들의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 한윤서까지 있으니...”

시아는 당연히 일진 무리의 욕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한숨이 절로 나와 보기도 전에 삭제를 하려고 하였다.

“어.....?뭐야?!?”

‘zmaill@34fghu.cm 안녕하세요. 어제 연쇄살인범 목격 보고서 받고 설문조사 도와드린 경찰입니다. 그 보고서가 딱 들어맞게 위치 파악이 잘 되어있어 어제 회의에 도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정확히 파악 완료하고 작성해주신 파일 대로 도어락 비밀번호만 확인한다면, 오늘 내로 99% 이상 체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범인 체포 후

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아의 메시지함엔 일주일 전 만났던 경찰의 메시지가 있었다.
“와... 이 오른손 은근 쓸모가 있는데? 근데 보통 경찰이 이메일 보내는 상황이 드물지 않나? 나 이러다가 진짜 범인 잡겠는데?”

시아는 자신감이 넘쳐흘렀고 정말 행복했다.

“시아야 무슨 좋은일 있니?”

거실에서 시아의 신난 듯한 발소리와 흥얼거리는 콧소리를 듣던 어머니가 의아해하시며 물었다.

‘띠리리링-띠리리링’

그 순간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 그건 바로 출장을 가신 아버지였다.

“여보세요? 아 그거? 그러게... 시아가 요즘 턱이 있는 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좀 받아보려고... 뭐? 육금영 박사님한테 우리 애를 왜 보내? 티비에 얼굴 나오면 더 심해질 수 있잖아.”

(*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세)

시아는 심한 턱이 있는 것 같다. 시아는 방에서 거울을 보며 웃긴 표정을 짓고 놀거나 침대에 엎드려 발을 구르며 경찰이 답장을 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띠리링’

8시간이 흘러 5시가 되자, 시아에게 메일이 왔다.

시아는 기대 하며 이메일함을 눌렀다.

‘6개나 왔네?’

보내진 이메일 주소는 2개였다.

‘zmaill@34fghu.cm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9시 연락드렸던 경찰입니다. 시아님의 보고서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이 이런 메일은 보내면 안 되지만 오히려 더 좋은 시도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운이 좋으면 상장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류 확인하고 메일 답장 해주시면 연락 보내 드리겠습니다.’

“대박...엄마!!”

시아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부르며 거실로 달려 나갔다.
“어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났어, 우리 딸?”

시아의 어머니는 처음 보는 딸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놀라면서 도 함께 기분이 좋으셨다.

“엄마... 그니까 놀라지 마요?”

시아는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렸다. 자신이 범인의 위치를 추리한 내용과 보고서를 보여드리며 한참을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너무 놀라 쓰러질 지경이었다.

“우리 딸 모범 시민상 받는 거 아니야?”

“표창장 아니야?”

시아와 어머니는 간만에 모녀 간 즐거운 수다를 떨 수 있었다.
“아 맞다! 메일 답장해야지!”

시아는 곧장 노트북을 꺼내 로그인을 했다.

‘sie.xa@zmaill.cm 우와! 정말 기쁘네요! 기회가 된다면 인터뷰도 하고 상장도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zmaill@34fghu.cm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억울하게 상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몇몇 계시지만 그런 경우는 드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sie.xa@zmaill.cm 다행이네요! 상장 받을 수 있다면 연락주세요:D
바쁘실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시아는 너무 떨렸다. 아직 5개의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sumin_08.chw@zmaill.cm 김시아! ㅋㅋ한유진 프로필 디데이에
니 이름 빼겼더라? ㅋㅋㅋ 하는 짓이라곤 왕따들은 다 똑같구나?'
'le.hxayu@zmaill.cm 야! 한유진이 너한테 화가 난게 있나보네ㅋㅋ
ㅋ디데이에도 빼고;;(이하영)'
'par.ksu08@zmaill.cm 금요일에 겁나 당당하더라? 등은 팬찮니? ㅋ
ㅋㅋㅋㅋ;한유진 맘에 들더라?'

'ha_nu08tH@zmaill.cm 시아야. 미안하지만 이제 연락하지 말아줘.
난 널 진심으로 믿고, 힘든 상화에서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며 빙자리를 채워줬었다고 생각해. 너도 나의 그런 친구였고. 사
과를 받고 싶진 않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기내서 메시지로
보내는 거야. 7살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조금 실
망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어. 너도 잠시나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kimsujeoung94@zmaill.cm 시아야, 나 김수정 선생님이야. 요즘
시아가 조금 힘들어 보여서...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겁먹지 말고
선생님한테 꼭! 말해주면 좋겠어ㅎ'

시아는 애써 울음을 참았다. 시아를 괴롭히는 애들, 언제나 힘이

되어줬던 친구,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선생님... 시아는 또 앞길이 어두워졌다.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진 놀이에 휘둘리는 애가 아니야. 난 언젠가 또 다시 일어나 성공할 거야! 결국 어두워진 앞길에 가로등을 하나하나 켜주는 건 나인 거야.’

시아는 이번 일로 오히려 자존심도 높아지고 어머니와 많은 얘기 를 나누며 사회생활에 한 발 더 발을 디뎠다.

“김시아~일어나 학교 가야지!”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려오고 시아는 어깨를 으쓱하고 무릎을 툭툭 두 번 친 뒤, 등교를 준비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드르르륵...’

“안녕하세요!”

시아는 자리에 앉았다. 뒤에선 일진 놀이에 찌들어 사는 안타까운 애들이 시아를 보며 웃고 있었다. 시아는 그런 애들을 보며 씨익 웃어주며 다시 앞을 봤다.

“야 채 왜 저래?”

최수민이 이하영에게 말했다.

“몰라. 채 요즘 머리가 좀 아픈 듯 크크”

그 말에 박서빈도 동조하였다.

“안타깝다 진심ㅋㅋ”

시아는 어떤 말이 들려도 그려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진짜 안타까운 애들은 막상 누군지 모르는 게 진짜 안타깝다.’

시아는 평소보다 당당하게 행동했다.

한 달 뒤, 시아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zmai@34fghu.cm 안녕하세요. 한 달 전 몇 번 연락드렸던 경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아님이 저번 연쇄 살인범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표창장 수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해양 경찰서 정문에서 오후 12시 45분에 만나서 상장 수여식과 함께 인터뷰 가능 하실까요?’

‘sie.xa@zmail.cm 물론이죠! 정말 영광이네요.’

시아는 정말 행복했다.

“당당하게 사니까 훨씬 행복의 가치를 잘 느끼는 것 같아!”

그렇게 약속된 날이 되었다. 시아는 인터뷰를 하기 전 어깨를 으쓱하고 무릎을 톡톡 두 번 친 뒤 인터뷰를 했다.

“연쇄 살인범을 잡으려고 애쓰신 이유가 뭔가요?”

PD님의 물음에 시아는 답했다.

“당해선 안 될 짓을 당하신 분들이 천국에 가신 걸 알고도 나몰라라 하며 숨고 있지 않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계속해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애들은 제 절친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저에 대한 거짓말을 하며 이간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항상 저를 ‘안타까운 애’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자신감을 얻고 잘 못된 행동을 그려려니 받아치니, 그 아이들도 점점 저를 괴롭히는

횟수가 줄었어요. 물론, 전 아직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그 아이들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중이죠. 괴롭힘에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바꾸기 위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일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는 무사히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다.

“시아야!!”

경찰서 밖에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고 시아는 뛰쳐나가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왜 여태 말 안 하고 참아 온 거야?”

엄마는 울며 말씀하셨다.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 속 썩인 것도 정말 죄송해요...”

시아와 엄마는 한참을 꼭 껴안고 울었다. 학교에선 최수민과 이하영, 박서빈의 소문이 퍼져 더 이상 시아를 괴롭히지 않았고, 윤서와 오해를 풀게 되며 다시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다. 그리고 시아는 학교에서 정말 유명해졌고, 학년마다 모범어린이 상을 받으며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했다. 시아의 책상에는 표창장 1개와 모범어린이상 3개가 나란히 놓아져 있다.

14년 뒤

표창장 12개와 모범 어린이상 3개가 나란히 놓아진 사무실에서
시아는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해양 경찰서 입니다.”

시아는 어깨를 으쓱하고 무릎을 툭툭 두 번 친 뒤 오늘도 범죄의
끝을 달린다.

—끝—

제 12 화

환생

이 수빈, 전지우

1화 전교 1등과 2등

내 이름은 강한나, 소라중 2학년 8반 전교 1등이다. 내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나는 인기도 꽤 많은 편에다가 친구도 많다. 근데 요즘 거슬리는 애가 한 명 있다. 바로 박나연이다. 박나연은 전교 2등인데 나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 하긴 나 같아도 질투 날 것 같긴 하다.

학원에 갔다가 늦은 밤에 집에 도착했다. 우리 엄마는 바빠서 거의 보지 못하고 우리 아빠는 국외 출장으로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보지 못한다. 오늘도 당연하게 혼자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내준 숙제가 쌓여있었다. 집은 고요했

다. 난 그게 좋았다. 막 숙제를 하려던 참에 현관문에서 딩동 소리가 들렸다. 집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나연이었다.

“아… 안녕? 한나야.”

나는 당황했지만, 뒤이어 들린 나연이의 질문에 더 당황했다.
“너랑 같이 공부해도 돼?”

매일 나한테 관심도 안 주던 박나연이 나에게 같이 공부해도 되냐고 묻는다니. 나는 기쁜 마음을 감춘 채, 같이 공부해도 된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나연이는 계속 부모님께서 언제 들어 오시냐고 물어봤다. 솔직히 귀찮았다. 계속 물어보길래 나는 말했다.

“왜? 우리 집에서 뭐라도 하게…?”

나연이는 당황했지만 그러지 않은 척 아니라고 주장했다.

2화 커피 마실래?

“한나야, 우리 피곤한데 커피 마실래?”

마침 나도 피곤한지라 내가 시키겠다고 했더니, 나연이는 자기가 커피를 사서 온다며 시키려는 날 말렸다.

나연이가 나간 지 10분이 지났을까. 나연이는 벌써 집 앞까지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집 도착 후 나는 물었다.

“나연아, 우리 집에서 카페까지 20분이 넘게 걸리는데…?”

“아… 내가 좀 뛰고 싶어서…”

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나연이가 준

커피는 좀 씁쓸했다.

‘내가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아서 그런가? 커피가 쓰네…’

공부를 마친 뒤 나연이는 집으로 가고 나는 뒷정리를 하고,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아니 너무 많이 흘렀다. 혼자서 꿩꿍 앓다가 이대로 가다간 큰 일이 날 것 같아 급하게 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 나연아, 늦은 밤에 미안한데…”

“…하! 바보”

“어? 뭐… 뭐라고??”

난 숨이 점점 차오르는 동시에 통증이 온몸을 감쌌다.

“사실… 내가 네 커피에 약을 탔거든.”

“나연아… 네… 네가 어떻게…”

“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모든 걸 다 말해줄게.”

그러고선 나연이는 빠르게 말했다.

“난 중고 사이트에서 불법 물약을 샀어. 그리고 넌 내 친구가 아니고 난 잘못한 게 이젠 없어. 넌 곧 죽을 것이고 난 아무도 모르게 1등을 차지할 거거든. 한마디로 증거인멸. 들어봤지? 잘 가~장한나.”

이게 무슨 일인가 만화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

눈앞엔 아주 밝은 빛과 함께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오셨군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지 날… 기다렸다고…?’

3화 사망

“제가 왜 여기에 전 죽었…?”

그 여잔 다짜고짜 날 차에 태운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죄송해요… 이제야 이야기를 하네요. 강한나 씨는 2023년 5월 8일 새벽 2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여긴 어디…?”

“여긴 환생의 나라입니다.”

“여기선 억울하게 죽거나 누명을 써 죽는 사람들이 재판을…?”

“네? 그러면 여… 여기가 죽은 사람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뭐… 그런 셈이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저도 환생할 수 있나요?”

“여긴 재판을 받기 전까진 일해야 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무조건 일을 해야 하죠.”

“네? 하지만 전 아직 학생인데, 일을 하지 않고 나갈 순 없나요?”

나는 그 여자에게 빌었지만, 답변은 다소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정말 유감입니다만.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않으면…?”

“제2차의 죽음이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일을 하지 않겠…?”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후! 좋아요. 그럼 공장으로 가시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강한 나 씨는 억울하게 사망하셨으니 가벼운 일을 시키겠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네...’

‘덜컹’

“별써 도착했네요.”

“웩! 이게 무슨 냄새!!”

그러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날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구지? 여기서 일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박나연이 나를 죽이고
환생의 나라에 와서 지금은 일하라는 건가?’

어이가 없었지만, 화폐를 얻어 환생해야 하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표정을 숨겼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화폐를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그냥 도우미라고 불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일하는 공간인가요?”

일하는 공간에는 일만 하는 사람들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계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도 보였다.

“저는 무슨 일을 하면 되나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발견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물건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듣던 대로 아주 똑똑하군요.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나가 일하는 곳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나가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일만 했다. 눈에 초점이 없는 게 좀비 같았다.

“이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으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적으려던 순간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다.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음을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쓰러졌다.

“도우미님 무슨 시간인가요?”

“결과 발표를 하는 건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나는 쪘恚했지만, 사람들을 따라 정체 모를 공간에 들어갔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화면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뜨면서 이름 밑에 숫자가 떴다. 그중 가장 낮은 사람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누군가 끌려 나갔다. 한나는 이 공간이 한없이 무서워졌다.

“점심시간입니다.”

그때 도우미가 나타나서 한나에게 자리를 설명해 주었다.

“여기 앉으면 되나요...?”

한나 옆에는 한나 또래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있었다.

“안녕...?”

“아... 안녕.”

남자아이는 한껏 경계하고 있었다. 남자아이의 얼굴이 낯익었다.

‘뉴스에 나온 아이 아닌가…?’

남자아이는 사실 부모에게 폭력을 당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 이였다.

“너도 나를 아는구나?”

“응. 근데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어, 사실… 너를 죽인 원수가 이곳에 와서 재판받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해.”

“그럼 화폐는…?”

“그건 단순한 거짓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지.”

그 순간 스피커에서 알람이 울렸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각자 방으로 가서 잠을 자시면 됩니다.”

한나는 도우미를 따라 방으로 갔다. 한나는 침대에 가서 골똘히 생각하였다.

‘나를 죽인 사람이면 박나연…? 박나연이 죽어야 내가 환생 할 수 있는 건가?’

한나는 잠에 쉽게 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도우미가 한나를 깨 웠다.

“여긴 어쩐 일로…?”

“박나연 양이 5월 9일 등교 시간에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재판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남자아이가 말했던 그 재판인가?’

한나는 재판소라고 적혀 있는 곳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박나연이 보였다. 박나연을 보자마자 소름이 끼쳤다.

“재판을 시작합니다.”

“박나연 씨 5월 7일 저녁 11시 강한나 씨에게 독약을 먹여 죽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럼 환생할 기회를 포기하고 강한나 씨에게 환생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한나는 박나연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이해 가지 않았다. 박나연은 어디론가 끌려갔다.

“환생의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환생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직업을 선택해주세요.”

4화 아이돌의 꿈

“음... 나는...”

수많은 직업이 있었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있었다.

“전... 아이돌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란 걸 느껴보지 않아서 많은 팬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다.

“정말로 아이들이 되고 싶습니까? 한 번 선택한 직업은 평생...”

“상관없어요! 전 많은 사람에게 사랑만 받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도우미가 어떤 여자를 끌고 들어왔다. 그 여잔 충격적이게도 박나연이었다.

“안녕 한나야... 나도 네가 죽고 나서...”

“야! 네가 날 죽였는데 네가 그다음 날에 왜 죽어!! 그게 말이 되냐?!”

“강한나, 박나연!!”

판사님께선 우리의 싸움을 말린 다음 말씀하셨다.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고 아직 말하긴 너무 빠른 것 같아 말을 못 했습니다.”

“네?!”

“아... 아무튼 강한나씨! 축하드립니다! 직업은 성공적으로 이직이 됐고요. 오늘 하루는 부디 편안하게...”

‘편히는 개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박나연이라는 충격을 끌어안고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나도 드디어... 사랑이란 걸 받을 수 있겠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 다음 생은 부디 편안하고 행복하길... ’

5화 아이돌로서의 환생

한 남자가 나를 불렀다. 그 남자 티셔츠에는 스텝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서둘러 거울을 보니 예쁜 얼굴에 마이크를 차고 있는 내가 보였다.

“한나 씨 빨리 나와주세요.”

무대에서 MC가 나를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슈퍼 루키 강한나!”

나는 열렬결에 무대 위에 올라섰다. 춤도 추지 않고 노래를 따라부르면서...

‘가수가 이렇게 쉬운 일인가...’

무대가 끝나고 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해주었다. 집에 들어와서 유튜브에 내 이름을 검색해봤다.

‘이게 뭐지...?’

내 이름 밑에는 립싱크 논란 영상이 수두룩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팬들은 악성 댓글들을 반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야 강한나!!!”

“누구세...?”

“지 회사 대표도 못 알아보는 게 어떻게 아이돌인 거야!!!”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립싱크 논란 못 봤어??”

“죄송합니다...”

“적어도 노래랑 춤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 연습해! 그리고 살찌면 안 되니까 밥 먹지 마!!”

밥을 먹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연습실로 갔다.

6화 비상(飛上)

저번 생에 공부하듯이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와 춤을 연습했다. 시간이 지나니 춤이든 노래든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난 댓글도 적응이 돼서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나는 무대를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직도 대표님의 눈빛, 나를 노려보는 감독님의 눈빛은 아직도 적응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괜찮은 척을 해보았다.

‘새로운 변신을 한 강한나’

“헉헉 떨린다...”

무대를 마치고 나는 집에 돌아가 가장 먼저 유튜브에 내 이름을 검색해보았다. 나는 대중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 댓글에는 온갖 칭찬들이 난무했다. 실력이 늘었다는 말과 함께 그때는 아파서 그랬나보다는 말도 있었다. 드디어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보는 것 같다. 근데 유일하게 비난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낙네임이 박체리…? 누가 체리 좋아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몰라! 칭찬받으면 된 거지!’

7화 MC로서의 출근

따르릉 전화기가 울렸다. 대표님이었다.

“한나 대박 났네!!!! 너 뮤직월드(음악 프로그램) MC로 발탁됐어!!
내일부터 출근하면 돼!!”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그날, MC로서의 첫 출근이었다. 아침이라서 피곤하지만, 팬들의 함성을 들을 생각에 너무 기뻤다. 나는 게다가 영어도 잘하는 아이돌로 소문까지 나서 더욱 인기가 올랐다. 비단 댓글도 가끔 달렸지만,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나의 상대 MC는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비주얼 센터 ‘김준영’. 내 인기는 끝없이 오르고 있다. 김준영과 첫 만남은 서로 어색한 기운들만 가득했다. 그때 감독님이 침묵을 깼다.

“대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색했던 대본 읽기와 사전 녹화를 끝내고 본 녹화를 시작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목소리 크게, 열심히 해.”

김수빈 매니저였다.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유일한 사람…

8화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곳

“끝났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다. 첫 MC 무대도 잘 마무리 한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럼 김준영 씨랑 강한나 씨 내일 100회 기념으로 무대 하니까 열심히 연습해요. 두 번째 녹화인데 죄송해요.”

준영 씨와 함께 연습실로 가는 도중에 뒤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그때까진 그게 그리 큰 영향을 끼칠지 몰랐다. 연습을 마치고 나는 어김없이 내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았다.

“어… 김준영과 강한나 연애한다…? 뭐지…”

처음에는 열애설 논란이, 점차 탈퇴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 씨!!! 찾았어요!!”

“뭐를?”

“한나 씨 비난 댓글이랑 열애설 뭐 이런 거 쓴 사람!”

수빈이는 열애설 의심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때부터 밤새도록 검색했다고 말했다.

“고마워 수빈아.”

“아니에요! 이제 다시 열심히 활동해 보자고요!”

“응!!”

“근데 그 사람 아이디 뭐야?”

“아. 잠시만요. 박체리요!”

“뭐… 뭐라고??”

“네? 박체리…”

기억났다. 박 체리… 박 체리는 어렸을 적에 박나연 별명이다. 체리를 좋아해서 별명이 박체리 였다. 사실 너무 어려서 기억조차 안 났지만, 이제는 생각났다.

“그 사람 아이디 나도 좀 줄래?”

그날 밤 나는 박체리. 아니, 박나연과 문자로 대화하기 위해 이름은 강한나가 아닌 강최원으로 바꾸었다. 참고로 강최원은 나와 성이 같은 유치원 친구 이름이다.

‘안녕하세요. 저 강한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아 네네 물어보세요~’

‘그... 열애설이나 립싱크 그거 진짜인가요??’

‘예! 당근이죠!!’

‘친구 하고 싶은데 팬찮나요?’

‘예 친구 해요!’

‘근데 낙네임이 박체리인데 본명이 있나요?’

‘박나연입니다!’

‘앗! 네네!’

설마 진짜인 줄은 몰랐는데... 나는 그렇게 박나연이 정말 소문을 퍼트린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다.

“컷! 강한나 씨! 또 NG잖아!”

“한나 씨 집중을 왜 그렇게 못하지!?”

“한나 씨 요즘 다크서클 때문에 메이크업이 잘 안 먹네...”

나는 밤새 박나연과 문자로 대화하느라 촬영에 집중하지 못했다. 오늘도 비난 댓글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게시물이 올라왔다. 늘 주 야장천 올라오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 같이 MC 활동을 하던 김준영과 같이 데이트하는 사진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평소엔 글로만 올라왔지만, 이번엔 사진과 함께 글도 같이 올라왔다.

‘ㅋㅋ 드디어 강한나와 김준영 사귀는 거 포착 ㅋㅋ’

9화 이어서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고 더는 mc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박나연과의 대화를 끊었다.

“자자! 3, 2, 1! 액션!!”

“안녕하세요! 뮤직월드의 MC 강한나!”

“그리고 뮤직월드의 또 다른 MC 김준영입니다!”

계속 나오는 열애설과 비난 댓글로 인해 촬영이 너무 불편했다.

‘아... 언제 끝나... 준영 씨랑 하는 거 너무 불편한데...’

“오케이! 촬영 끝! 수고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한나 씨...”

“아! 네네!”

‘뭐야. 왜 또 잘해주는 거야’

“강한나는 나 좀 보자.”

‘아... 또 무슨 잔소릴 하려고...’

최근 들어 수빈이가 많이 아파서 다른 매니저와 활동 중이었다.

“야, 진짜 미쳤냐? 내가 MC 볼 땐 꼭 행복한 척이라도 하고 김준영이랑 잘 있으라고 했지. 완전히 어색하잖아!”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죄송합니다. 뿐.

“됐어. 다음에도 어색하면 넌 내가 출연 안 시켜줘.”

예전 내가 한창 뜰 땐 화장품 모델, 옷 음식 가릴 것 없이 다 광

고 문자였지만, 이제 광고 연락은 오지도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짹짭하지...’

10화 이게 무슨 일이야?

“야! 강한나 안 일어나?!”

아침부터 날 깨우는 매니저.

‘제발... 수빈아. 빨리 와!!’

“자!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아이돌이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게 된 박나연입니다!!”

‘아니!! 이럴 순 없어 나의 두 번째 희망까지 짓밟고선...’

“능력이 뛰어나니깐 다들 잘해주고!”

그렇게 난 박나연과 숙소와 연습을 모두 같이 하였다.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난 박나연을 불렀다.

“나연 씨! 잠깐만 얘기 가능한가??”

“아. 네네... 하하”

“나연 씨는 어떻게 넌 나의 두 번째 꿈을 짓밟는 거야?”

“네? 무슨 말씀...?”

“...끝까지 모르는 척하기는...”

“맞아요... 아니 맞아, 강한나.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뭐?”

“난 널 오늘부로 처음 보는 거고 너도 이제 날 기억하지 마.”

“아니 난 네가 정말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진 날 절대 널 용서 못 해.”

나는 그 뒤로 정신을 잃었다.

“한나 씨!! 한... 강한... 강한나 씨! 저 수빈이에요. 한나 씨 쓰러 졌다는 거 듣고 바로 왔어요!”

‘자기도 아프면서 어떻게 나를...’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마지막화 환생(換生)

나는 점점 회복했고, 또다시 MC를 맡게 되었다. 내가 아플 때 박나연이 MC를 봤는데,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뮤직월드의 강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직월드의 김준영입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나 씨 잠깐 나 좀 봐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김준영은 나를 불렀다.

“그... 저... 사실 강한나 씨...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린 정말 비밀 연애를 했고 머지않아 들통이 나버렸다.

“안녕하세요! 뮤직월드의 강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직월드의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어떤 거죠?”

“바로바로 저와 강한나 씨는…! 오늘부로 사知己다!!!”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시청률은 거의 폭발했다고 한다. 당연히 그 이상한 매니저는 해고를 당했고, 우리 수빈이 매니저는 나와 더 친해졌다.

박나연이 뮤직월드가 끝나고 난 다음 날 불렀다. 난 이제 더는 박나연이 무섭지 않다.

“왜?”

“미안한데… 네 남친 진짜 김준영이야…? 사실 나 김준영 들어올 때부터 좋아했거든.”

“뭐 어찌라고 준영이는 너 같은 여자들 안 좋아해. 그리고 내가 이미 김준영 여친이거든.”

그 뒤로 박나연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뒤에서 나를 욕하고, 실수로 날 밀치는 척하며 때리기도 한다. 보통 나는 연하게 화장하고 박나연은 진하게 메이크업한다. 그런데 이젠 메이크업 선생님들한테 자기도 연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안 해주면 해고한다고 협박까지 한다. 나연이의 연한 화장은… 그다지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다. 게다가 옷 신발 머리 전부 다 날 따라 한다.

“야! 이젠 그만해! 언제까지 날 따라 할래??”

“어머! 내가 언제~난 너의 패션을 따라 한 것뿐이야!”

“야 이젠 그만 좀 해라. 좀!!”

그 순간, 준영이가 나타났다.

“어? 준영아!”

“어머! 준영 씨...?”

준영이가 나연이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지겹지도 않나.”

“아뇨... 사실 한나 씨가 자꾸 절 때리는 거...”

“됐어. 이미 말해뒀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아니... 무슨 증거로...”

그러자 준영이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 그리고 폭행 영상까지 말 그대로 전부 다 공개했다.

‘난 이제 정말로 그 많은 논란에서 해방인 건가...?’

그날 밤, 난 정말 행복했다. 이젠 다른 애들도 다 날 좋아하고 나의 옆에 소중한 남자친구 준영이가 있으니깐.

‘드디어 나도 남들도 사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영원히’
나는 창문에 환히 비치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고마워요. 더는 환생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날 계속 지켜봐 줘요!’
달이 나를 보며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이젠 박나연 차례에요.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길...”

그리고 난 오랫동안 안 보던 핸드폰을 꺼냈다. 나의 SNS 계정들은 안 본 사이 이미 떡상을 했고 악성 댓글 게시자들은 사과했다.
그에 대해 돌아오는 나의 답장이자 복귀 게시물.

‘괜찮아요! 다시 열심히 활동할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에필로그 – 박나연

‘어라… 여긴 어디지…?’

“기다렸습니다. 박나연씨. 이젠 잘 살 줄 알고 인간계로 보냈는데.

다시 공장으로 가시죠.”

“아… 꼭 다시 환생한다.”

제 13 회

Investigation

유지원, 이상훈

Investigation – 최고급 호텔 서바이벌 게임

– 등장인물

- 이재이: 갓생 삼 신의 리더. 가끔 게으르고, 리더답지 못할 때가 있다. 키 183cm, 어깨 39cm.
- 이상훈: 언제나 사건을 만들어내지만, 천재적일 때가 있다. 키 185cm, 어깨 40cm.
- 유지원: 이재이의 오른팔이지만, 너무 먹을 것을 밝혀 답답하다. 키 184cm, 어깨 37cm.
- 박준영: 키는 177cm, 어깨는 48cm로, 매우 넓다. 어깨에 닿으면 날아감. 외모는 그럭저럭...

Episode 1

Check-in

오늘은 갓생 삼 신의 창단일 기념으로 몰디브 최고급 호텔에 14박 15일로 다녀왔다.

“와 여기 진짜 크다!”

“먼저, 체크인부터 하자.”

놀란 지원이 옆에서 재이가 신난 듯 안 신난 듯 말했다. 우리는 체크인을 하고 VIP 객실로 들어갔다. 일단, 호텔 구조부터 설명하겠다. 1층 로비는 매우 넓고 컸다. 그리고 옆에 편의점, 카페 그리고 조식 먹는 곳이 있었다. 2층은 수영장, 헬스장 등등이 있다. 그리고 3, 4, 5, 6, 7, 8, 9, 10층은 일반 객실이고 11층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VIP 객실이다.

“애들아! 우리 내려가서 밥 먹을래?”

지원이 기대하면서 말했다.

“오케이, 지금 당장 가자!”

이재이가 아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조식을 먹으러 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근데 지원은 34접시나 먹었고, 상훈은 21접시, 그리고 이재이는 19그릇을 먹었다. 다 먹고 난 뒤, 가위바위보 내기에서 진 재이가 돈을 냈다. 가격은 95만 원이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조용했다.

“야 근데 아까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았느냐?”

상훈이가 소름 끼치게 말했다.

“에이~ 사람들끼리 침묵 게임하고 있었나 보지 ㅋㅋ”

지원이 순수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끼익 끼익...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멈췄다.

“뭐... 뭐야!”

이재이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보기가 울리며 CCTV 쪽에서 꺼림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으하하!”

엄청나게 소름이 끼친 소리였다. 그러더니 20층만 남기고 19부터 1층까지의 버튼들이 짹 사라졌다.

“20층을 눌러서 올라오거라... 낄낄낄”

소름이 끼친 아이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상훈이가 말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올라가자!”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승~! 추락했다. 놀란 지원이는 대성통곡하며 엄마를 불렀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로 솟아올랐다.

“낄낄낄! 아주 재밌군... 으하하!”

누군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듯이 대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누군가 말하며 나왔다

“당신은 테드 인베스티게이션에 초대되었습니다. 당신은 1층부터 5층까지 추리, 희생 등을 하며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를 탈출하면 됩니다. 단, 탈출하시면 상금 5억 원이 지급됩니다. 당신, 참가하시겠습니까?”

지원, 상훈, 재이가 잠깐 고민을 하다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Episode 2

희생 숨바꼭질

게임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 어둠과 침묵의 방으로 소환되었다. 그곳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많은 방이 있었다.

“뭐. 뭐야...?!”

“어? 여긴 어디지?”

지원이는 ‘쩝쩝쩝-’ 소리를 내는 동시에 과자를 먹으면서 말했다. 갑자기 텔레비전 쪽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가지 게임을 할 것입니다.”

“무슨 게임입니까?”

상훈이 뚱 마려운 듯이 말했다.

“바로, 한 명을 이 방에 놔두고 나머지 두 명은 이 방... 아니. 악몽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으하하!”

“네?! 악몽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한 명만 이 악몽에서 고통에 몸부림을 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원이 엄청나게 놀란 듯이 말했다.

“정확하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세요!”

“네! 앵? 아니 하는 방법을 안 알려주셨잖...”

상훈이 어리벙벙하게 말했다

“아 그냥 엎어라. 뒤집어라 해!”

“엎어라. 뒤집어라 한~판!”

“!!!!!”

“이재이...”

“리더님...?”

“안돼!!!”

“아니 근데 잠깐, 저 녀석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빨리 시작해 주십시오.”

검은 마스크가 말했다.

“근데... 다 나가는 방법은 없나요?”

상훈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제가 25초를 세고 제가 아무도 찾지 못한다면 모두 나갈 수 있습니다.”

10초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럼, 시작 하겠습니다.”

갑자기 방에 검은 마스크가 나타났다.

“25, 24, 23, 22, 21...”

“빨리 숨어!!!”

이재이가 우렁차게 소리쳤다.

“5, 4, 3, 2, 1 시작 하겠습니다.”

“콜록콜록”

상훈이 기침을 좀 크게 했다.

“거기에 있군요.”

“아, 참고로 제한 시간은 35초입니다.”

그리고 결국 상훈이는 들키고 말았다… 그런데 마침 시간이 다 돼 검은 마스크 갑자기 없어졌다. 다행히 모두 살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주방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있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하나의 쪽지가 있었는데, 이 게임장의 구조와 단서가 들어있었다. 근데 단서 아래에 어떤 글이 있었다. 이것을 풀면 큰 힌트가 될 것 같았다. 힌트 내용은 매우 복잡했다.

‘11, 22, 8, 44 다음 숫자는??’

다들 어리둥절했다. 그러자 상훈이가 자신만만하게 답을 말했다.

“답은 55야!!”

“그 이유는 11, 22, 8, 44는 11, 22할 때 다음 8이 나오잖아? 근데 8을 중심선을 긋고 반으로 나누면 3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리고 11, 22, 33… 이렇게 쭉쭉 가면 마지막 답은 55가 나오니까!”

“우와~” 재이와 지원이 함께 소리쳤다.

그리고 난 뒤, 무슨 번호 같은 게 나왔다.

“0416578…? 이게 뭐야?”

“일단 쟁겨놓자.”

Episode 3

동행자와 탈출

모험 중 동행자를 만났다. 이름은 박준영, 키는 177cm 정도 된다. 어깨는 48cm로, 매우 넓다. 어깨에 닿으면 날아간다. 외모는

그려저려… 동행자와 함께 탈출을 계획했다.

“일단 이 방에서 나가야 해!”

“탈출구 저기 있다!”

재이가 빠른 눈썰미로 단숨에 찾았다.

“저기 정문이 있다!”

“응? 뭐지? 비밀번호?”

정문을 찾은 상훈이 옆에 지원이가 의아하며 말했다.

“흠… 아하! 아까 우리 단서 풀고 번호 얻었잖아! 그거 아니야?”

역시 갓생 삼신의 두뇌 상훈이다.

“오!! 한 번 해보자!”

“0416578… 띠리릭!”

“우와!!! 탈출이다!!!

“이제 나가자!!”

Episode 4

검은 마스크의 실체

“안내 방송 드립니다. 지금 이 호텔을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뭐? 우리 지금 결린 거야?”

지원이가 절망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재이가 소리쳤다.

“으아아아!!! 뒤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온다!!!”

“도망쳐!!!”

지원이가 목이 찢어지듯 소리쳤다.

“헉. 헉 죽다 살았네! 헉. 헉”

겨우 따돌린 상훈이가 바닥에 드러누우며 말했다.

– 한편, CCTV실 –

“이걸 탈출하다니 대단하군요.”

검은 마스크가 말했다.

“하… 저 녀석들 계속 복수 하고 싶었는데 시원하다.”

“저 녀석들 매니저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잠깐만, 헉! 마이크를 끄는 걸 깜빡했잖아!”

내막을 알게 된 재이는 화가났다.

“엥? 우리 매니저라고? 이 녀석 우릴 괴롭히려고.”

“괜찮아, 마침 새로운 매니저 뽑으려고 했는데 잘됐네!”

지원이가 재이의 화를 가라앉히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다른 호텔로 가자!”

“근데, 우리 짐들은?”

상훈이가 분위기를 깨며 말했다.

“야, 내가 당연히 다 챙겼지!”

재이가 당당하게 말했다.

“오! 그럼 우리는 다시 출발!!”

그렇게 우리는 그 지옥의 호텔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몰디브 호텔로 떠났다.

–THE END–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14 화

<Remember> 를 설치 하시겠습니까?

정 다 민

제1장. 할아버지 집

오늘은 토요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다. 단순히 주말이어서 좋아하는 건 아니다. 토요일에는 종종 1박 2일로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할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꼭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 기분이 설렌다. 할아버지 댁은 바닷가 근처이다. 그래서 기차로 2시간 30분, 또 차로 30분 이상 가야지 도착한다.

오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와 감자튀김,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커피를 사서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엄마는 별말씀을 안 하신다. 조용히 가주는 게 어디냐고 생

각하시는 듯하다. 이런 기회는 잘 없다. 듣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설레는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그렇게 2시간 반 동안의 기차 여행을 마친 후 또다시 택시를 타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반겨 주셨다. 반가운 인사를 나눈 다음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곧장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켜려고 했고 엄마는 언제나 그랬듯이 잔소리 폭탄과 함께 나를 가만두지 않으셨다. 귀에서 피가 날까봐 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소울아. 수영하러 가자!”

제2장. 그날 저녁...

할아버지 집 앞에는 자갈이 깔린 작은 해변이 있다. 크기는 작아도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세서 동네 사람들에게 꽤 인기 있는 곳이다. 어릴 때부터 왔던 곳이라 사실 나도 좋아하는 바닷가이지만 5학년이 된 지금은 귀찮을 뿐이다. 게다가 오늘은 억지로 끌려 나오는 바람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터벅터벅 걸으며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다 보니 얼마 가지 않아 청량한 파도 소리, 자갈이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곳에는 이미 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몇몇 있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엄마가 수영복을 들고 고함을 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허허허' 하고 웃고

계셨다. 인정하긴 싫었지만, 파도를 맞고 있으니 져질로 웃음이 나왔다. 즐거웠다.

그날 저녁이었다. 난 수영을 한 탓에 무척 배가 고팠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1++한우를 맛있게 먹었다.

“역시 한우는 달라! 할아버지 최고!!! 잘 먹겠습니다.”

“허허허... 그래, 많이 먹거라.”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눈에 초점이 없어지시더니...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할아버지, 그걸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많이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난 고기를 입에 넣으면서 말했다.

“맞다, 그랬지. 허허~ 그래그래,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주름진 얼굴은 금세 또 어두워지셨다.

제3장. 결심】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잊어버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셨다. 그럴수록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 갈 때마다 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늘 게임만 했다. 아니 하는 척을 했다. 뭔가 마음이 불편했고 또 무섭기도 했으며 할아버지와 다신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 홈쇼핑에서 하는 사이판 여행 광고에서 멈추게 되었다. 그런데 그걸 보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조용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소울아... 저기서 수영했을 때가 참 좋았지?”

난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라 물었다. 사실 우리 가족은 몇 년 전에 사이판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래, 기억이 나는구나. 소울이하고 저기서 혜엄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니 거북이도 본 것 같은데, 허허... 그런데 이 기억도 잊을까 걱정이 드는구나... 이 기억, 우리 소울이하고 함께한 추억만큼은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말이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 속 어딘가에서 밀려오는 슬픔과 함께 머릿 속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빠르게 떠올랐다. 이제부터 할아버지 기억 지키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했다...!!

제4장. 대화

나는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의 추억과 기억을 저장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돌아올 때면 얼른 핸드폰을 켜서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재미난 에피소드나 생각, 짧은 말 한마디라도 다 녹음했다.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엄마와의 추억, 나와의 추억,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 등 비록 많은 것을 말씀하시진 않

으셨지만 짧게라도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동영상, 사진까지... 최대한 할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했다.

하루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조금 좋아졌을 때이다. 나는 식탁에 앉아 밀린 숙제를 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다.

“소울아, 그때 샀던 장난감, 조그만 장난감... 아직 가지고 있니?”

“장난감이요??”

나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

“언제더라... 왜 보라색인데 소울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소울이랑 할아버지랑 마트에서 샀지 아마...”

나는 그제야 생각이 났다.

3년 전 크리스마스.

그때 내가 빠져있던 캐릭터가 있었는데 색깔 별로 모으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보라색 캐릭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엄마와 동네 마트를 다 돌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포기하려던 찰나 때마침 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마트에 그것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선물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네, 할아버지! 아직 갖고 있어요. 전 그때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허허, 그랬구나. 내가 산타가 되어 소울이에게 찾아왔었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빨리 건강해지셔서 이번 년에도 산타가 되어 주세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구나.”

제5장. '기억 저장소'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 할아버지의 소소한 기억들이 모였다. 그리고 목소리까지도. 이제 난 이 정보들을 가지고 할아버지 기억 저장소를 만들 것이다. 그동안 조금씩 배웠던 코딩을 이용해서 AI 앱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계획한 AI 앱의 기능은…

- 1) 내가 '기억 앱' (아직 정확한 이름은 안 정했다) 을 켜면 할아버지의 얼굴과 마이크 모양의 버튼이 나온다.
- 2) 그 버튼을 클릭한 뒤 할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거리나 묻고 싶은 것을 말한다.
- 3) 그러면 AI가 할아버지 목소리와 생각으로 답을 해준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잠시나마 할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된다. 난 매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원 가기 전, 자기 전 시간 날 때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도대체 계속 무엇을 그렇

게 열심히 만드는 거냐고 물어보셨지만 난 항상 비밀이라고 했다.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만들었지만, 너무 어려웠다. 막힐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영상도 찾아보고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아버지 기억 저장소’를 완성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른 앱을 실행해 보았다. 어설프지만 이 정도면 완전 대성공이다. 계획했던 것이 다 성공적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열른 토요일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주 토요일은 결국 잊을 수 없는 슬픈 토요일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제6장. <Remember>

“학교 다녀왔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Remember>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했다.

잠시 후.

- └ 할아버지, 저예요!
- └ 소울이가 왔구나~
- └ 네~ 할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어요?
- └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소울이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학교는 잘

다녀왔니?

- └ 오늘 시험을 쳤는데… 저 몇 점 받았게요?
- └ 허허… 글쎄다. 고생했으니 오늘은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무나~~^ ^
- └ 에이… 할아버지도 참… 맞춰 보시라니 까 다른 말씀 하시네요~ 제가 못 친 것 같으시죠?! 저 백 점 받았어요!! 하하
- └ 우리 손녀 장하구나~ 역시 할아버지 손녀다. 자랑스럽구나~
- └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채팅해도 돼요?
- └ 당연하지.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 └ 영상 채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Y/N
- └ Y

화면에는 내가 알고 있던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도 할아버지를 보면서 활짝 웃었다. 비록 어설픈 화면과 단순한 대화일지라도 할아버지가 그리울 때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나는 앱을 공유해야겠단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내가 느꼈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 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실행하기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 생각을 한다면 저 하늘 멀리 계시는 할아버지도 환하게 웃고 계실 거라고 난 확신한다.

‘Remember’를 설치하시겠습니까?

–The End

제 15 화

운석 충돌 1시간 전

김 서준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리모컨을 눌렀는데 갑자기 긴급속보가 방송되었다.

“속보입니다. 1시간 뒤 운석이 대기권에서 타지 않고 부산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시민은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필이면 내가 있는 곳이 부산이어서 대피해야 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잽싸게 짐을 쌈 뒤 집을 떠났다. 운석이 하늘 너머로 보였다. 차를 타고 대피하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빨리 갈 수가 없었다. 이대로 가다면 부산에 운석이 충돌하는데! 다행히도 윈쪽에 지름길이 있어서

빠르게 갈 수 있었다. 운석 충돌 48분 전. 이대로 다른 도시로 가기엔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근처 지하 대피소에 주차하고 들어갔다. 몇십 분 뒤, 운석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무서웠다. 그날, 우리는 공포에 떨며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이상하게 대피소 출구 쪽에서 환호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놀라 출구 쪽으로 가봤다. 밖은 햇볕이 내리쬐듯 엄청나게 밝았고, 바닥에는 보석들이 잔뜩 떨어져 있었다. 나는 믿기지가 않아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뉴스에서 오늘 새벽에 운석의 경로가 바다로 바뀌어서 운석에 박혀있던 보석들이 이곳으로 뛴 거라고 하였다. 나는 보석들을 주워 담으며 가족들과 환호를 질렀다.

제 16 화

경찰이 되는 방법

유선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의사? 판사? 많은 직업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중에서 경찰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2023년 기준).

<챕터 1: 합격 조건>

경찰이 되려면 범죄자나 전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도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었다니. 상상할 수 없겠죠?

<챕터 2: 신체 조건>

경찰이 되기 위해선 신체 조건이 뛰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

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신체 조건 중 ‘신체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자격은 약물 검사, 신체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갖추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조건입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각 조건도 있습니다. 청력은 40l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신이 있습니다. 문신은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문신이 없어야 합니다.¹⁾

<챕터 3: 합격 절차>

경찰 공무원 합격 절차는 총 4차까지 이루어집니다. 1차부터 4차 까지 얻은 배점이 40% 이상인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1 차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이고, 3월 17일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게시되며 시험 일시는 3월 25일 토요일에 10:00~11: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되며, 합격 통지는 3월 31일 금요일 17시입니다.

2차 시험은 신체와 체력 적성검사로, 3월 31일에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게시되며, 시험일시는 4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1) 출처: 한국 강사 신문

신체 검정 불격자는 현장에서 통보됩니다.

3차 시험은 응시 능력 자격시험으로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불합격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4차 시험은 면접시험이고, 5월 19일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게시되며,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루어지고, 6월 16일 17시에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챕터 4: 가산점 및 평가 요소>

집단 면접 평가 요소는 정확성, 논리성 및 전문지식이고, 배점은 1점에서 10점입니다.

개별 면접 평가 요소는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입니다. 개별 면접 배점도 집단 면접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점은 대표적으로 무도, 운전, 경찰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되는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땠나요? 경찰이 되는 조건은 너무 많지만, 우리는 노력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제 17 화

모 두 를 위 한 한 국 의 저 출 산

고 희 민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한국의 저출산에 관한 미래는 어떠한가?’라고 말이다. 당신은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제각각 생각할 것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 ‘한국의 저출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 저출산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

아마도 저출산을 모르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저출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출산이란 정말 많이 들은 단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뉴스 혹은 유튜브만 틀어도 저출산에 관한 주제와 예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10년 넘게 우리 사회는 저출산에 관한 얘기 중인데, 진짜로 저출산이 심각한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해보자면 심각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2006년 합계 출산율이 1.30 명이었던 거에 반해, 2022년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다. 체감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출생아 수로만 나타내자면 2006년의 출생아 수는 44.8만 명이고 2022년의 출생아 수는 24.9만 명이다. 약 20만 명이나 차이 나는 숫자이다. 물론 역대 정부와 현재 정부들이 절대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꾸준한 관심을 두고 460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즉,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두고 우리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만 허비할 것이 아닌,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저출산의 역사 >

저출산을 공부하기에 앞서, 저출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무언가를 공부하려면 그것의 역사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로마의 멸망에 관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이슬람 세력이 로마의 마지막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멸망한 걸 줄 안다(출처 EBS).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멸망한 것일까? 멸망에는 몰락 즉, 원인이 있는 법이다. 나는 고대 로마의 몰락 원인에는 저출산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래 로마의 출산율은 바닥이었을까? 아니다. 고대 로마 1세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인구수가 약 1억2천만 명 이상의 인구 대국이었다. 하지만 3세기에 들어 제국의 몰락이 가속화되자 급격한 출산율 저하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고대 로마 고위층들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그렇게 고대 로마는 저출산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바로, 국력과 저출산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나라의 경제적 혹은 군사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따라 출산율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예를 들어보겠다.

‘건물을 짓는데 어느 한 곳에는 기둥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기둥을 놓지 않은 채로 계속 건물을 쌓아나갔다. 하지만 건물은 기둥 한 곳을 놓지 않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나갔고, 건물은 무게

중심을 버티지 못하여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작은 건물조차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계속해 내기가 매우 어려운데, 큰 국가는 어떠하겠는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다. 건물 사고는 자주 있는 일인데, 자주 있는 일을 가끔 있는 일에 비교해도 되느냐고 말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작게 볼 시에는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 역사상으로 크게 볼 때는 결코 가끔 있는 일이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가? 지금부터 저출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

< 한국의 저출산 >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IMF 사태부터 시작하였다. IMF 사태 때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출산율이 떨어졌고, IMF 사태가 끝난 2001년 8월에서 4월이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금 글을 쓰고 있는 2023년의 출산율은 0.53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부산대학교 최송식 교수님이 발표한 바로는 경제학적 원인과 사회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3가지를 종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학적 원인’은 합쳐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란 무엇일까?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란,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러면 저 출산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가치관도 변화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IMF가 한국에 일어났을 때 어떠한 요인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여 개개인의 가치관이 그전과는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요인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걸까? 이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IMF 사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IMF 사태는 외환위기에 대한 경제위기로서, 외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긴 경제적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약 4년이 걸렸고, 그 4년이 우리에게 저출산 문제 요인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IMF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아기를 낳을 여유는 당연히 없어졌고,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아기를 낳지 않을까?”

맞는 말이다. 소득과 출산력 간 상관관계 이론을 처음 주장한 멜서스가 발표한 바로는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출산율도 같이 향상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분명 선진국 반열이다. 그렇다면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까? 이것은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 혹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요인들에서는 MZ 세대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 여기서 MZ

세대란 1980년대에서 2010년대의 세대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우리는 전기 밀레니얼(1980년~1988년)과 후기 밀레니얼(1989년~1996년)을 합친 새천년 세대에 대해 알아보겠다.

밀레니엄 세대들이 아기를 낳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IMF 때의 경제적 상황’과 ‘밀레니엄 세대의 치열한 경쟁’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IMF 때의 경제적 상황은 나름 간단하다. IMF 때 많은 실직자가 생겨났고, 그중 한 가정의 부모인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면 부모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뭐라도 해야했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런 힘든 모습만을 지켜 보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식들은 ‘나는 내 자식에게 이런 가난과 고난을 대물려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금의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밀레니엄 세대의 치열한 경쟁이란 무엇일까? 이 치열한 경쟁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과 더 관련이 깊다. 그러면 이것은 이 책을 읽는 어린 독자분들 혹은 밀레니얼 세대이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내가 어린 독자분들에게 질문 딱 한 가지만을 해보다.

요즘 학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나? 여러분의 대부분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많은 생각이 몇 초 혹은 길게도 몇 분간 들었을 것이다. 교육시스템의 문제 중 주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이다. 즉, 2000년대에 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른들이 되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럼 우리나라의 사교육 중 무엇이 가장 문제인 걸까? 바로, 과도한 공부량과 사교육 의존성이다. 사교육 의존성에 관한 이야기는 이 글을 읽는 학생 여러분이 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다. 이제 원인에 대해 정리가 다 되었으니, 해결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 해결 방법 >

첫째, 아기를 낳을 시에 주어지는 혜택을 증가해야 한다. 지금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아기들의 분우값과 기저귀값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혜택이다. 그러하니 혜택을 대폭 증가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한다.

둘째, 저출산의 인식 변화이다. 요즘 일베 혹은 폐미니스트와 같은 성별 혐오(남자 혐오와 여자 혐오)가 굉장히 심하지 않은가? 또한, 이런 것을 주제로 SNS상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데, 대부분 이런 영상을 시청할 시에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질 위험이 있다. 저출산 자체를 설명하거나, 저출산에 대한 자신의 생가 혹은 국가가 이런 문제점을 고치면 좋겠다는 등 비판 혹은 자신의 의견 제기 등은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출산하지 말라는 태도는 금기시해야 한다. 부디 오해 없이 내가 한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셋째, 정치인들이 저출산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해결 방법 모두 당연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 이 당연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

이 책이 길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하며 이 책을 마치도록 하겠다. 또한,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고마움을 느끼겠다. 부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저출산이 해결되었기를 기원하며 책을 마치겠다.

제 18 화

지구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

권민균

첫 자를 쓰며

이 광활한 우주 속 우리는 매우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한 이유이다.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 매우 작은 점이 이 우주의 역사를 추측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와 우주의 역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chapter 1: 우주와 지구의 탄생

스티븐 호킹이 세운 이론인 빅뱅 이론이 있다. 한 점에서 일어난 엄청난 폭발로 우주가 탄생했다는 이론이다. 이 폭발로 나온 원자

들은 서로를 중력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다 서로 뭉치고 붕괴하다가 거대한 공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열을 내뿜는 천체 별이다. 초기 별은 헬륨이나 수소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지구는 이 두 원소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후기의 별들은 서로 융합하여 칼슘, 산소, 탄소 같은 가벼운 원소와 초신성이라는 별의 폭발로 철, 금,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도 등장하였다. 이후 태양이라는 별이 생겼고 태양 주위에 있는 암석과 얼음이 부딪치고 합쳐져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행성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챕터부터 나올 지구이다.

chapter 2: 지구의 변화

이제 지구가 다듬어질 차례이다. 처음에 지구는 용암과 돌로만 뒤덮인 뜨겁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었다. 시간이 지나 분출된 용암은 점점 식어가 돌이 되어갔고, 지구는 추축이지만 물을 품은 혜성과 부딪치며 물이 생성되었다. 지구는 물이 증발하여 우주 밖으로 나가지도 영원히 얼지도 않는 골디락스 존에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갔다. 한 편, 바다와 땅의 구분이 생겼는데 이 당시에는 땅들이 모두 붙어 있었고 지금은 없는 바다테티스해가 있었다. 이후 점점 맨틀과 지각에 대류와 지진 등으로 땅들은 점점 분리되어 갔다. 참고로, 지구는 바깥부터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고체이지만 길게 보면 대류 현상을 뛴다.

chapter 3: 생명의 시작과 산소의 등장

마침내, 30억 년 전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15억 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생명체 고세균이라는 원핵생물이 등장했다. 이들은 첫 번째 생명 역사의 장을 열었다. 이들은 점점 다양해져, 처음에는 RNA라는 불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점차 DNA라는 안정적인 유전체를 가지게 되었다.

마침내 이들 중 위대한 생명체가 하나 등장한다. 바로 남세균이다. 남세균은 그 당시 산소가 없던 지구에 산소를 준 세균이다. 이 남세균은 지금까지 발견된 세균 중 유일하게 광합성을 하는 생명이다. 광합성은 유일하게 그 당시 산소를 얻을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과학자들은 남세균을 지구 산소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고 생물들은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chapter 4: 고생대, 생명의 시작을 알리다.

고생대에 첫 번째 생명의 도약은 캄브리아기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그때 당시 3문에 달했던 생물이 그 한 번에 시대에 38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학자들은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 중 눈의 등장을 꼽았다. 눈을 가진 생물들은 더는 떠다니는 유기체가 아닌, 더 좋고 영양가 있는 생물을 찾아다니는 사냥꾼이 될 수 있었다. 이때 등장한 생물로 삼엽충, 오파비니아, 할루키게니아나, 아노말로카리스 같은 생물들이 등장했다.

4억 3천만 년인 이 때를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 시기’라 말한다. 5대 대멸종에 끼친진 않지만, 캄브리아기에도 멸종이 있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토미안 대멸종이나 드레스바히안 대멸종이 있다. 그러나 드레스바히안 시기에 탄소-13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어쩌면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후에 식물들이 육지에 상륙하였다.

동물들이 좀 더 늦게 상륙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에 살다가 육지에 살면 중력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또한 육지에서 움직이려면 근력 또한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지만, 마침내 완전한 다리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강한 지느러미로 육지를 기어 다닐 수 있는 생물들이 등장했다. 오르도비스기 · 실루리아기 · 데본기 · 석탄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단궁류와 여러 육지 생물들이 점차 오늘날 생물에 모습을 잡기 시작했으나 고생대의 마지막 시대 폐름기에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폐름기 말 폐름기 대멸종이 일어나게 된다. 바다 생물 90%, 육상 생물에 70%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대한 대멸종이 일어난다.

대멸종이 일어난 원인은 대부분에 학자들이 화산 폭발로 믿고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화산 폭발이라는 원인 하나로 생물의 반 이상이 멸종한 것이다. 스티븐 그래스비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대멸종 직후의 석탄재 층에서 세노스피어라는 입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노스피어가 폭발한 화산재와 같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세노스피어가 동식물에 독소 반응을 일으켜 바다에서는 물에 녹아서

지상에서는 공기에 녹아서 생물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발생한 대멸종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로 화려한 등장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최악의 대멸종으로 돌아온 시대가 되었다. 또한, 그다음 시대에 거대 파충류들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갔다. 마치, 대멸종이 언제 있었는지 마냥 말이다.

chapter 5: 중생대, 공룡들이 세상을 휘어잡다.

페름기에도 공룡은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궁류 같은 생물들 때문에 그리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생물들이 ‘기낭’이라는 특별한 호흡 기관으로 살아남은 그들의 시간이다. 중생대로 넘어가기 전에 공룡에 정확한 개념부터 알고 가야 한다. 공룡은 다리가 골반뼈에 쏙 들어가야 공룡이다. 이는 익룡이나 수장룡, 어룡등이 공룡이 아니라는 증거다. 익룡은 골반뼈가 파여있고 그곳에 다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생대에 첫 번째 시대는 바로 트라이아스기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공룡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었다. 이때에는 작은 디모르포돈 같은 익룡이 많이 있었다. 해양에서는 원시 어류로 추정되는 코노돈트의 절멸, 암모나이트를 비롯한 연체동물의 쇠퇴 등이 있었고, 육상에서는 거대한 초기 양서류, 포유류의 조상인 테랍시드(수궁류)를 제외한 시냅시드(단궁류)와 공룡과 익룡 및 악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배 파충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기 때 공룡이 세상을 휘어 잡는다. 다음 시

대는 쥐라기 시대이다. 아마 쥐라기 월드라는 영화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쥐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공룡들은 대부분 백악기에 살던 공룡들이다. 트라이아스기 멸종 이후 공룡들은 이 틈을 타 풍부한 산소를 바탕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 결과로 그 시대에는 용각류와 거대한 수각류와 조반류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공룡의 후순인 수장룡과 어룡이 하늘에서는 익룡들이 세상을 지배했다. 예를 들어 쥐라기 시대에는 오프탈모사우루스등의 어룡과 레시오사우루스등의 장룡이 익룡은 다위노프테루스나 스카포그나투스가 등장하였다.

또한, 쥐라기의 수각류하면 빠질 수 없는 종류인 알로사우루스와 용각류인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있다. 그리고 쥐라기의 다음 시대이자 중생대의 마지막, 백악기 시대이다. 그리고 쥐라기에서 백악기로 넘어갈 때, 이상 기후로 눈이 내리고 생겼지만, 백악기 전반에는 점차 온화한 기온을 되찾았다. 이는 타무 매시프 분화에 의한 소빙하기로 추정된다. 쥐라기에 살던 메갈로사우루스나 알로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이 멸종하자 티라노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백악기 시대에 또 다른 위대한 발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속씨식물의 등장이다. 속씨식물은 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식물에 등장으로 꽃에 수정을 도와주는 꿀벌, 꽃가루나 과실을 먹는 나비와 나방 그리고 개미도 이때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찬란했던 백악기를 끝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k-pg 대멸종이다.

한 이름 모를 소행성이 지구에 대기로 다가갔고 유카탄 반도로 떨어졌다. 이후 핵폭탄 수십억 개에 달하는 에너지가 폭발한다. 그리고 반경 1,500km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운다. 약 지름 100km 높이 25km 되는 구멍을 만들면서 말이다. 또한, 한순간에 10km가 되는 산을 만든다. 진도 11에 지진을 만들고 아니고에 논쟁이 있지만 화산 폭발도 추정된다. 그리고, 산이 가라앉으면 1km가 되는 초거대 쓰나미를 만든다. 15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100m이다.

그러나 재앙은 이제 시작이다. 소행성 충돌로 텅겨 나간 잔해들이 우주로 텅겨 나가 몇 천년 동안 공전하거나 화성으로 가거나 달의 가거나 가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구로 갔다. 이들은 대기를 뜨겁게 데웠다. 수백 도로 몇 분을 데웠거나 수천 도로 몇 초를 데웠거나 둘 중 하나다. 이는 산불을 일으키고 거의 모든 생물을 멸종시켰다.

그러나 최악은 아직 남아 있다. 중발한 물질로 구성된 연기가 성 층권을 덮었다. 그리고 깊은 어둠의 세계가 시작된다. 지구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진다. 특히 바다에는 플랑크톤이 90%가 멸종해 바다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후 점점 연기가 걷혀간다. 그들은 아직 살아 있다. 공룡은 조류로 다시 탄생하여 우리에 생활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든다. 만약 조류가 공룡이면 파충류 안에 공룡, 공룡 안에 조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파충류 안에 조류가 있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조류와 파충류, 그리고 공룡을 통틀어 "조반목"이라 말한다. 그리고 지구에 다시 지구를 지배할 포유류의 시대가 들어선다.

chapter 6 : 신생대, 포유류가 세상을 지배하다.

중생대가 끝나고 공룡들의 억압으로 쫓겨 살던 우리의 조상 포유류가 공룡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다시 태어난다. 신생대에는 중생대처럼 기로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신생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생대라고 하면 얼어붙은 평원의 매머드와 스밀로돈 등이 생각나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기후변화가 있었으며 빙하기는 그중 일부분이자 최후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신생대이다. 그리고 포유류뿐만 아니라 공포 새가 살기도 하였다. 이때는 테티스해가 사라지며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 제 4 빙기 때는 해안선이 후퇴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높아지고 간빙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졌다. 빙하기는 얼음이 얼어 낮아졌고 간빙기는 얼음이 녹으면 높아졌다.

chapter 7 : 인류, 지구의 운명을 좌우한다.

신생대는 5대 대멸종 중 어느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볼품이 없었지만, 현재 지구에 최상위 포식자가 될 ‘인간’이 등장하였다. 처음 인간은 나무를 타고 다니던 영장류였다. 여기에서 착각하는 것이,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원숭이는 단지 우리의 조상에게서 떨어져 나온 종일 뿐 우리의 조상은

아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으로 우리는 꼬리가 없지만, 그들은 꼬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땅으로 내려와 이족보행을 하였다. 이에 따라 두 손이 비었고 이 손으로 우리는 발전하였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거의 모두가 아는 가장 유명한 인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다. 이 당시에는 사냥하기 위한 자연에서 구한 어 중간하게 날카로운 돌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살았던 종으로 호모 하빌리스가 있다. 다음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이다. 이들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에도 살았다. 그들의 뇌는 더 커졌고 주먹 도끼라는 손 망치를 사용해 사냥하였다. 이후 석기 시대 후 그들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였다. 그들은 시체를 매장하였고, 시체 채색을 하였다. 동굴에 거주하였으며, 석기 제작 등의 기술이 발달하였다. 이후 바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탄생하였다. 사실 인류의 진화를 일직선으로 나타낼 순 없다. 지금은 우리에 대해 말한 것일 뿐 이 과정에서 여러 인류가 뻗어 나왔다.

chapter 8 : 인류의 문명

이제 자세히 알아보는 일만 남았다. 처음 인류는 채집과 사냥을 하였다. 채집은 과일이나 열매 등을 따먹었으며 사냥은 다른 생물들을 잡거나 누군가 먹고 남은 것을 먹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털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류는 다른 동물들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분비해 좀 더 오래 뛸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단거리 달리기는 약해도 장거리 달리기는 그 어떤 생물보다 오래 달릴 수 있었다. 사냥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나은 도구를 만들어 사냥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15,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바로 농사의 등장이다. 우리는 한 곳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을 알아내, 이후부터 한 곳에서 살아야 하기에 집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움집으로 간단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집은 단지 자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데 남은 식량을 보관하였고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사실상 그때는 지폐가 없었기에 곡식이나 먹거리가 재산이었다. 그리고 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벌어진다. 승리한 쪽은 차지하고 패배한 쪽은 사라지는 잔인한 세상이 시작되기도 하며, 서로를 깎아내렸다. 결국 우리는 청동을 발견하였고 철을 만들었으며 많은 것을 해내 현재는 전기를 다루며 원자를 쪼개고 하늘을 날기도 하였다. 우리가 살아온 기간은 지구에 나이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짧은 수준이지만 우리는 다른 생물들과 달리 더 많은 일을 해내며 우주에도 발을 내디뎠다.

chapter 9 : 자연 재해와 기후변화, 인간에게 경고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과 다른 고민이 생겼다. 바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우리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공장과 집 등을 건설하

기 위해 숲을 부수고 동물들을 학살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계 피라미드는 부서지고 식물들이 죽어갔다. 그리고 도시에는 이산화탄소가 득실거리며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창궐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오락을 위해 맹수들을 서커스에 강제로 투입했으며 패션을 위해 그들의 가죽을 뜯었다. 그러나 우리가 날린 화살이 다시 돌아왔다. 지구는 과도한 인간들의 소비와 오락으로 인한 동물들의 한 만큼이나 인간에게 피해를 주었다. 여름에는 매우 덥게 겨울에는 매우 춥게 폭염과 한파를 일으켰다. 한파는 북쪽에 제트기류가 약해지며 다가왔고 폭염은 사막화로 인해 다가왔다. 또한 우리가 우주에 날린 인공위성들도 우주 쓰레기가 되어 대기권을 통과해 다시 돌아왔다. 또한 지구 가열화로 극지방 빙하가 녹아 바다에 해수면이 증가하여 섬이 잠겨가고 있다. 또한 농업 쪽에서는 베뚜기와 해충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우리가 쏜 화살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꽂혔다. 그것도 아주 깊이 말이다. 우리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반환점을 넘기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지구를 살리기 위해 여러 환경 운동의 참여하고 작게나마 전기와 물을 아끼고 이 작은 노력이 합쳐져 거대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해결책으로 화성으로 가자는 프로젝트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지구를 버리자는 뜻 같다. 하지만 나는 지구를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그동안 설명해온 지구의 역사, 그 역사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는가? 맞다, 그들의 유산과 궤적은 우리의 추측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냈다. 이 위대한 유산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생물들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내준 디딤돌, 남세균이 우리에게 산소를 포유류가 우리에게 길을 내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나 또한 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지켜주는 게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 생각한다.

chapter 10 : 미래 지구와 바람직한 태도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실현하면 된다. 또한 최근 주목 받는 친환경 에너지가 있다. 이는 화력이나 화석 연료보다 경제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환경친화적이다.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된다. 현재 한국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뛰어난 나라이다.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애초에 에너지를 아끼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방법은 안 쓰는 전기 코드를 뽑고 (쓰지 않아도 전기가 흐르긴 한다) 전기를 덜 쓰는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에너지 말고도 물, 대기, 토양 등이 오염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사이트, 캠페인 등을 하며 지구를 지켜 가는 게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바람직한 태도이자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 작은 소원이 나중에 큰 소원이 되어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침표를 찍으며

이 책은 지구의 역사를 알려 지구의 위대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지키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다. 우리는 200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해냈지만 덩달아 숲을 부수고 동물들을 학살해 지구는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닌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지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역사적인 자연 유산 앞에서 우리의 터전을 잊지 않기를. 이 책에 마침표를 찍으며 생각해 본다.

출처

책 – 지구의 짧은 역사

유튜버 – 과학 드림

제 19 화

초등 학생을 위한 컴퓨터 꿀팁

박준영, 정이건

박준영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한글 자격증을 보유한 학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증 공부를 통해 얻은 유용한 컴퓨터 기능과 꿀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Chapter 1: 많이 쓰는 기본 컴퓨터 키

우리가 많이 쓰지만 잘 모르는 키들이 있습니다. 그 키들은 page up, page down, home, end, delete, insert, enter, alt, Ctrl, shift, caps lock, tab, Esc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단축키의 기본이 되는 ALT, Ctrl, Shift, Tab의 위치를 꼭 외워주세요!

Chapter 2: 단축키와 PPT

저는 컴퓨터 작업에서 자주 단축키를 활용합니다. Ctrl+C와 Ctrl+V는 기본이지만, Ctrl+Z와 Ctrl+Shift+Z를 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축키를 익히면 자격증 시험이나 학교 PPT 과제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사회 및 직장 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그림이나 도형 삽입과 글 상자 활용으로 원하는 내용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 중 그림자와 네온 효과를 활용하여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Chapter 3: 자격증과 저장

자격증은 중요합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자격증 시험장 근처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실패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저장하세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할 때 주기적으로 Ctrl+S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수로 데이터를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Chapter 4: 컴퓨터 기타 설정 방법

컴퓨터 배경 화면 변경: 배경 화면을 바꾸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

튼을 클릭하고 "개인 설정"을 선택하세요. 윈도 정품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 후 원하는 배경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확대: 화면을 확대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자가 어렵게 보일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바로 나가기 아이콘 만들기: 바탕 화면에서 바로 나가기 아이콘을 만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를 선택하세요. 아이콘 모양 변경은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후 "속성" 아이콘 변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Chapter 5: 컴퓨터 꿀팁 프로그램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PPT 삽입에서 3D 모델로 들어가고 원하는 이미지를 영어로 검색하고 삽입한 후 상단 애니메이션에서 원하는 효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낼 때 화질이 좋지 않다면 PNG EGG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곳에서 무료로 고품질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면 palette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Chapter 6: 직장인 꿀팁

빠르게 나가기: 윈도 키 + X를 누른 다음 "U"를 두 번 누르면 빠르게 컴퓨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 윈도 키 + L

을 누르면 컴퓨터 화면을 잠그고, 잠금 번호를 설정하고 싶다면 컴퓨터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추가하세요. 직장에서의 활용: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등의 프로그램에서 Ctrl + N을 누르면 빠르게 새 문서를 열 수 있습니다.

Chapter 7: 엄마 몰래 컴퓨터 꾸팁

유튜브 시청 중 엄마가 다가온 경우, Ctrl+W를 누르면 빠르게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열고 싶을 때는 Ctrl+Shift+T를 누르면 이전 창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중에 구글 검색하고 싶다면 주소창으로 이동하기 위해 Alt+D를 누르면 간편하게 검색 엔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hapter 8: 그림판 꿀팁

그림판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텍스트와 특수문자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음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옵니다. 이때, 더 많은 특수문자를 보고 싶다면 "Tab" 키를 누르세요. 그럼 다양한 특수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에 창이 너무 많아서 바탕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싶을 때, 윈도 키와 'D'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다시 윈도 키와 'D'를 동시에 누르면 다시 복구됩니다.

Chapter 9: 게임 컨트롤

컴퓨터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컴퓨터 키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모든 컴퓨터 게임의 기본 움직임은 A, S, D, W와 같은 키들을 사용합니다. A는 왼쪽으로, S는 뒤로 가기, D는 오른쪽으로 가기, W는 앞으로 가는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게임에서 달리기는 Shift나 Ctrl로 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0: 화이트 해커와 해킹 배우기

화이트 해커가 꿈인 사람은 해킹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화이트 해커는 블랙 해커들이 해킹하지 못하게 정보를 강화하고 보안을 수시로 확인하며 계정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해킹을 배우기 위해서는 C와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최소한 기본 수준으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 웹해킹: 웹 해킹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입문하기에 적합합니다. HTML, CSS, JavaScript, PHP, MY SQL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웹 해킹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웹 개발의 기초를 다지고 웹 해킹을 시작해보세요.
- 포너블: 포너블은 C언어와 어셈블리어 해석 능력, 리버싱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Python을 학습하면 도움이

될 것이며, pwntools 모듈을 활용하여 포너블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리버싱: 리버싱은 C언어 능력이 요구되며, 어셈블리어 기초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Python은 선택 사항이며, 필요한 경우에 참고 자료를 찾아보세요. 관련 책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Chapter 11: 편집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합니다. 캡컷과 비타는 무료 편집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 캡컷: 캡컷은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제공하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윈도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단, 휴대폰에서 사용할 때 워터마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컴퓨터에서 편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비타: 비타는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틱톡, 인스타 등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로고가 포함되어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며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정이건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를 아주 아주 잘하는 정이건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지, 이지할 수 있으니, 초보분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장 : 기본 컴퓨터 꿀팁

여러분은 단축키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컴퓨터에서 한 3~10초 정도 걸리는 일을 1초 이내로 끝내주는 아주 좋은 키입니다. 이제부터 그 키들의 종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림판에서 유용한 키>

1. Ctrl+c를 글자나 그림을 선택하고 둘이서 딱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2. Ctrl+v를 하면 복사했던 게 붙여 넣어집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있던 곳에 복사했던 글자나 그림이 붙여 넣어집니다.
3. Ctrl+x를 누르면 선택했던 글자나 그림을 잘라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다시 생깁니다.

<그 이외의 키>

1. Ctrl + a: 전체 선택 (혹시 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라면 지금 시도해보세요..)
2. Ctrl + b: 인터넷에서는 '자주 가는 곳' 목록 편집이고, 마이

크로소프트 워드에서는 굵은 글씨를 나오게 합니다.

3. Ctrl + d: 워드에서는 폰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즐겨 찾기 바로 추가 기능 입니당 :)

4. Ctrl + e: 인터넷에서는 '검색' 기능을 보여주고, 워드에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5. Ctrl + f: 찾기. (모두 아실 듯...)

6. Ctrl + g: 워드에서는 찾아서 고치기가 나온답니다. (인터넷에서는 안되는군요)

7. Ctrl + h: 워드에서는 찾아 고치기 또 다른 버전. 인터넷에서는 '기록' 기능인데... 직접 눌러보세요.

8. Ctrl + i: 인터넷에서는 '즐겨찾기' 기능이고, 워드에서는 글씨를 아주 쓰기입니다 (기울어진...)

9. Ctrl + j: 별 기능 없어요.

10. Ctrl + k: 워드에서는 하이퍼링크 삽입이랍니다.

11. Ctrl + l: 인터넷에서는 사이트 열기, 워드에서는 정렬 없음 모드더군요.

12. Ctrl + m: 인터넷에서는 엔터처럼, 워드에서는 한 문단에서 첫줄 제외하여 모두 조금씩 띄어 써집니다. (설명이 부적절 한듯하네요; 편리한 기능이니 한번 해보세요.)

13. Ctrl + n: 인터넷에서는 같은 페이지 아주 열기, 워드에서는 '새문서'입니다. (궁금해서 시험해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다는...)

14. Ctrl + o: 인터넷에서는 사이트 열기 (=Ctrl + l), 워드도 문

서 열기입니다.

15. Ctrl + p: 말이 필요 없는 프린트 기능.
16. Ctrl + q: 워드에서는 몰아 쓰기라 불러야 할 것 같은 기능...
(제 설명 능력이 부족한 것 같네요... 어쨌거나 많은 글 쓸 때 종이 절약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랍니다)
17. Ctrl + r: 워드에서는 오른쪽 정렬, 인터넷에서는 '새로 고침' 이랍니다.
18. Ctrl + s: 보통 워드뿐만 아니라 문서에서는 저장 기능이죠.
19. Ctrl + t: 워드에서는 Ctrl + m과 같은 기능입니다.
20. Ctrl + u: 워드에서는 밀줄 모드!
21. Ctrl + w: '현재 창 닫기'. 잘못해서 누르면 낭패지요.
22. Ctrl + y: 워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 듯...
23. Ctrl + z: '되돌리기' 기능입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인터넷에서는 '뒤로' 더군요.

<컴퓨터 프로그램 3개(광고 아님)>

1. 스크래치: 생채기는 <http://scratch.mit.edu/>이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 2등으로 쉬운 게임이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하는 방법이 잔뜩 나오고 영어로 치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오니 완전히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로블록스 스튜디오: 여러분은 대부분이 로블록스는 알 텐데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모를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로블록스에서 했던 모든 게임을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사이트는

<http://.roblox.com> 입니다.

3. nox: 녹스는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컴퓨터에서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려받기는 <http://kr.bignox.com/> 입니다.
4. www.sites.google.com/view/computerhoneytip: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위에 기능과 프로그램 유용하게 쓰시고 이 정보 글의 장단점이랑 궁금한 점을 ptfs0419@gmail.com과 > ptfs041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제2장 로블록스 대처법 꿀팁

1. 욕(사이버 폭력)

요즘은 로블록스에서 욕하는 것을 많이 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마다 보면 욕을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 a x a 보 또는 못 a x a 생 a x a 짐 같은 기분이 나쁜 말을 a x a나 a x 같은 알파벳을 넣어서 진짜 어떻게든 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신고라는 방법이 있죠. 신고는 로블록스 안에서는 안 통합니다. 크게 욕하거나 뭔가 많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채팅 창을 찰칵해서 한 3장 정도를 로블록스 Gmail에 보내거나 로블록스 지원팀에게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성 문제 플레이어 이

런 식으로 올려서 그분은 부끄럽게 하면 자기 짜증도 풀리고 그분도 부끄러울 것 같네요 :)

2. 사기(거래 등)

사기는 로블록스에서 가장 화가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저도 사기는 당연히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는 당연히 알죠. 일단 욕과 비슷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신고할 때는 스크린샷이 아니라 당연히 영상으로 촬영해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다른 분들이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3. 해킹

만약, 아바타가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 로블 계정 비번을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비밀번호가 맞는데 로그인이 안 되면 틀리지 않은 이상 거의 복구가 불가능하니 2단 인증을 해두고 이메일을 써 놓으세요. 그리고 많은 초등학생들이 실수하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계정 태블릿 계정.... 컴퓨터 계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좀 똑똑하고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은 다 같은 계정으로 해두지만,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디 좀 외우고 비번도 외워서 같은 계정으로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게임 하세요:) 그리고 계정마다 비번 좀 같게 해두세요! 자꾸 까먹지 않으세요? 저는 다 같아서 편한데 친구들이 자꾸 비번 까먹었다고 "네가 컴

퓨터 잘하니깐 좀 비번 찾아줘 "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비번 같은 걸로 하고 외우라곳!

이번 글은 여기까지! 유용하게 쓰시고 이 정보 글의 장점과 단점 이랑 궁금한 점을 위에 적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고 편한 로블록스 하세요 :)

제3장 컴퓨터로 멋진 척하기.

여러분들 중 멋진 척을 왜 하느냐 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진짜 쓸 데 있습니다! 일단 아래에 있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말씀하시죠~ 갑시다!

<CMD>

CMD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이번 글에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cmd를 설명하기는 어렵죠... Windows Command Processor 인 것만 알고 계세요 . 자 그래서 멋진 척이 뭔디유!!!!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알려 드리겠습니다.

1단계: cmd 열기. 찾기 칸에 CMD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른다.

2단계: color 0a라고 입력한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른다.

3단계: CD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

4단계: TREE를 입력한다. 엔터키를 누른다.

5단계: 키를 마구 치면서 난리를 치면 자기가 해킹하는 것처럼 보인다. 끝!

편집부의 끝맺음

신가영

친구들의 글을 편집하고, 저의 글을 쓰며 지금까지 잘 모르던 컴퓨터 단축키, 맞춤법 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어른이 되어 컴퓨터나 글과 관련된 진로를 개척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매우 잘 써준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이 고마운 마음을 항상 지니며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친구들이 쓴 글을 출판하고 사람들이 내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흥미롭고 대단한 경험인데, 저와 이건, 가영, 희민이가 편집부에 지워내 친구들의 글을 편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실, 편집하는 것이 마냥 좋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남아서 편집하고, 학원까지 빼며 마지막 작업까지 힘들게 끝낸 기억이 납니다.

이번 계기로 제가 예전부터 알리고 싶어 했던 컴퓨터 꿀팁을 알리게 되어서 좋았고,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어도 열심히 글을 작성해 준 5-8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희민

편집부를 하면서 그 많은 글을 편집하며, 그럭저럭 편집 실력도 성장하고, 또 많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이건

편집 과정이 좀 많이 귀찮았지만, 친구들의 글도 읽어보며 제 글 수준과 편집실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확실한 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지)

